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돼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5월 17일)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순직 군승 원력 잊지 않을 것 현충일을 앞두고 6월 4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가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직 군승들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이날 현충원 순직군승 묘역 참배에는 교구장 선일 스님을 비롯해 10여 명의 군승법사들이 참석했다. 선일 스님은 "군포교를 이어온 이분들이 있어 한국불교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역군승법사 88.3% "이대론 군포교 붕괴"

[기획] 군승 파송 절벽이 다가온다

① 군승에게 듣다, 파송 절벽 원인과 해법은?
② 맥 끊긴 군종사관후보생, 활성화는?
③ 군승요원 수급, 출가자 감소 파고 넘나?
④ 20년 화두 타종단 진출, 해법될까?
⑤ 군승 파송 제도 개선, 무엇이 필요한가?

현역군승 103명 설문조사
군포교 질적 저하 45.6%
TO감소 양적 저하 42.7%
군포교 현장서 우려 높아

출가자 감소 주원인 꼽고
대안으로 '군승 출가' 개편
해법 난해한 총체적 문제
독신 예외 등 파격제안도

노덕현 · 임은호 기자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군승 파송 미달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본지 설문조사 결과 현역 군승법사 88.3%가 군포교 붕괴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송 예비자원까지 말라 군승 파송 절벽까지 예상돼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지가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역 군승법사(132명, 응답 103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군승 파송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역 군승법사들은 이번 파송 미달 등으로 △우수자원 선발부족으로 인한 군포교 질적저하(47명, 45.6%) △장기적인 불교 TO감소로 인한 군포교 양적저하(44명, 42.7%) 등 군포교 타격을 우려했다.

군승법사(불교군종장교)는 400여 군법당에서 군포교를 이끄는 핵심자원이다. 군승법사 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ROTC와 같이 인가를 받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 WISE캠퍼스, 중앙승가대 등 3개 종립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군종사관후보생과 4년제 대학 졸업 및 동등학력을 취득한 35세 이하 사미 · 사미니 승적 이상 스님이 지원하는 군승요원이 그 것이다.

올해 조계종은 국방부가 요청한 군승법사 파송인원 18명 중 7명을 파송했다. 개신교의 경우 200여명이 지원하여 10:1의 경쟁률로 군목 18명을, 가톨릭은 4:1의 경쟁률로 군신부 14명을 파송한 것과 대조된다. 군승 파송 미달은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이 최근 몇 년간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군승요원 모집 또한 출가자 감소로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교계 안팎에서 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현역 군승법사들은 군승 파송 미달의 주원인으로 △출가자 감소 및 군승요원 지원 감소(79명, 76.7%)와 함께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감소(16명, 15.5%)를 두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중복응답 집계에서는 군승요원 지원 감소를 응답자의 78.6%가 원인으로,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감소를 응답자의 35.9%가 원인으로 각각 꼽았다. 작금의 사태 원인이 군승요원 지원 감소에 있다는 지적이다.

군승 수급 대안으로는 출가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과 함께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를 꼽는 이들이 많았다. 군승요원 감소 문제가 '출가자 감소'라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승요원 지원 자격 중 하나인 사미 · 사미니계 승적 이상인 스님을 판단하는 사미 · 사미니계 수계자를 보면 2009년에는 280여 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절반인 140여 명에 불과하다. 2022년 봄 수계에서는 단 35명이 계를 받았다.

현역 군승법사들은 "출가자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하여 군승요원 조건을 충족하는 해당 스님들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연초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또한 교구본사 등에 군승요원 의무할당제 등을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젊은 군승법사는 "어떤 사찰의 경우에는 행자 때부터 종무소에서 소임을 보게하는 등 승단에서도 출가자 감소의 영향이 있기에 군승지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승 파송 인원 확충을 위한 대안을 묻는 설문에서는 △군종사관후보생 연계 출가자 모집 등 제도 개편(34명, 33%)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28명, 27.2%) △교구본사 파송 할당제 등 군승요원 지원 제도화(26명, 25.2%)를 꼽았다. 특히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한 독신 강제 철폐나 금강대 · 위덕대 등 타종단 불교대학에 대한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확대 등 파격적인 시도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일부에서 제기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군승법사들은 군포교 최일선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특히 파송 문제는 국가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종단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설문 분석 기획 3면〉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립박물관장 법정구속

집행 유예 없이 징역 1년형
서울중앙지법 6월 3일 선고
은닉 성보문화재 몰수 판결
1심서 첫 몰수 선고 의미 커

오랜 기간 도난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온 前사립박물관장 A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가 은닉해온 불교문화재들은 모두 몰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6월 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前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온 A씨의 수법, 수량들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물관을 운영했던 A씨는 미필적으로 도난문화재임을 인식했음에도 구체적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매했다. 거래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장부 작성 등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며 "A씨가 문화재를 보관한 장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들도 모르는 곳으로 특정인을 제외하면 존재도 몰랐다. 이는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시설과 항온항습시설들이 전무한 곳에 문화재를 방치하듯 보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93년부터 서울 종로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한 A씨는 종로구 소재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다량의 도난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왔고, 이미 수차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과 몰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A씨는 2020년 1월 한 옥션에 포항 보경사 영산회상도, 지장보살도를 출품해 덜미를 잡혔다. 해당 문화재가 도난품임을 인지한 조계종과 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즉각 옥션을 방문해 도난 사실을 공포했고 성보문화재 임의제출을 촉구했다. 이후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수사를 통해 총 16건 32점의 도난 불교문화재를 확보했다. 피해사찰은 구례 화엄사, 천은사, 순천 선암사, 강진 백련사, 해남 미황사 등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문화재 불법 취득 및 은닉 혐의'로 검찰에 기소 · 송치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도난 문화재 은닉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및 몰수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문화재 은닉이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줬다.

이번 판결로 조계종과 피해사찰들은 한시름을 덜었다. 실형도 실형이지만 몰수 명령 선고가 1심에 났기 때문이다. 피해사찰 중 한 곳인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재판이 마무리돼 도난됐던 성보인 화엄사 시왕도가 어서 빨리 환지본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조계종은 A씨의 항소 여부를 살피고, 항소 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A씨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려 한다"면서 "14개 피해사찰을 중심으로 '피해사찰협의회'를 구성하려 한다. 재판 최종 판결까지 관련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구태서 本紙 신임 사장 취임



구태서 본지 신임 사장〈사진〉이 6월 7일 취임했다. 구태서 사장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4년 진주MBC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1990년 BBS불교방송 보도국에 입사해 보도팀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부산총괄국장을 역임했다.

구태서 사장은 "사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광고 수익 확대과 다양한 기획사업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며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의 사시를 구현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으뜸 불교 언론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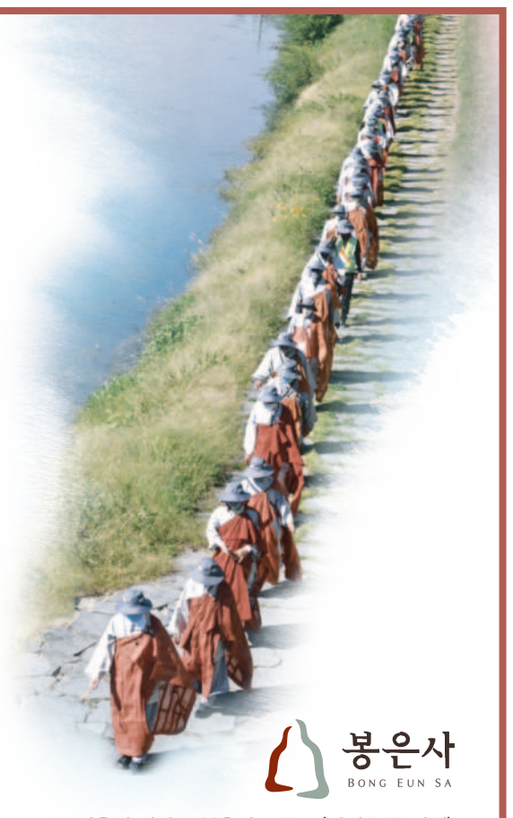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

은닉 도난 성보 '환지본처' 길 열다

[기획] 2014~2022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 여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립박물관장 A씨 은닉 성보
2014년부터 2차례 거쳐 환수
은닉범 A씨 집유 · 몰수 판결
총 38건 73점 성보 본 자리로
불법 은닉 문화재 근절 계기
공소시효 확대 등 개선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6월 8일 열린 도난 성보 환수 고불식에서 헌향하고 있다.

숫자로 본 2014~2022 성보환수史

총 38건 73점

1차 환수 31건 48점 (2014~2017)
19곳 (피해사찰)

2차 환수 7건 25점 (2016~2022)
7곳 (피해사찰)

"도난됐던 소중한 성보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환수돼 이제 원봉안처인 사찰에 봉안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환지본처를 기념하기 위해 부처님께 아뢰고 널리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022년 6월 8일 1989년에서 1994년 사이 도난됐던 7개 사찰 성보문화재 25점이 30년만에 원봉안처인 사찰로 환지본처됐다.

도굴꾼, 장물아비와 문화재 은닉범으로 인해 사찰을 떠난 성보문화재들의 환지본처를 알리는 고불식은 지난 2017년 4월 4월 이후 두 번째다.

환수 시스템 구축한 1차 환수

도난 성보들이 본격적으로 환수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다. 2014년 5월 26일, 한 경매회사에서 불교미술을 주제로 경매가 열린다는 소식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로 접수됐고, 문화부는 모니터링 결과 한 불상이 2004년 도난된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 문화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문화재전담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와 합동으로 5월 29일 옥션 프리뷰 현장으로 출동해 장물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확인된 불상 1점과 불화 3점을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보관했다.

광역수사대는 그해 8월까지 조계종, 문화재청과 협력해 총 48점의 성보를 회수했고, 10월에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언론과 대중에 공개했다. 10월 22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문화재청장, 경찰청장 등 3개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고 조인한 '불교문화재 도난 및 회수를 위한 3개 기관 협약' 이 체결돼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시스템 구축이 이뤄졌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조계종과 피해사찰들은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조계종은 피해 사찰 19곳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회의를 통해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검찰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이 같은 대응 시스템은 이후 이어지는 불법 은닉 성보문화재 환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몰수 판결 선례 만든 2차 환수

2차 성보 환수는 2016년 4월 도난된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를 수사하며 시작됐다. 조계종은 서울지능범죄수사대 및 광진경찰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사립박물관장 A씨가 불법 은닉하고 있던 도난 성보문화재에 대한 환수를 본격화했다. 그해 9월 김룡사 사천왕도를 환수했으며, 10월 불상 6건을 임의제출 받아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 보관했다. 성보를 도난당한 피해사찰 주지스님들은 이번에도 '도난불교문화재 피해사찰 협의회' 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2018년 7월에는 법원이 A씨에 대해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은닉하고 있던 문화재에 대해 최초로 몰수를 선고했다. 이후 2020년 6월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하며 도난 성보가 사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아직 진행 중인 성보 환수

사립박물관장 A씨와의 지난한 악연으로 대표되는 불법 은닉 성보 환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긍정적인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닉 성보들에게는 몰수 명령이 내려졌다.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과 문화재 몰수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난과 불법 은닉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만큼 이제 남은 숙제는 제도 개선이다. 이에 조계종은 민법상 선의취득 조항에서 불교문화재를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달거나, 거래 시 취득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문화재보호법 내 도난 관련 공소시효의 확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제도 폐지 등 조속한 환지본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TBC 드라마 속 법당 도박 장면 불교 농락"

종평위, 6월 8일 성명서 발표
'인사이더' 속 스님 폄훼 비판
JTBC에 참회 · 영상 삭제 요구

6월 8일 첫 방송된 JTBC 수목 드라마 '인사이더' 에 불교를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장면이 장시간 노출돼 논란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불교농락' 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종평위는 6월 9일 'JTBC 드라마 인사이더의 불교농락 즉각 중단하라' 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JTBC에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참회와 영상 삭제를 요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장면은 사찰법당에서 불법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는 장면, 스님이 주도적으로 도박을 하고 판돈을 걸며 '관세음보살' '사바하' 를 외치는 장면, 도박장 단속 후 스님이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장면 등으로 드라마 도입부에 15분간 노출됐다.

종평위는 성명에서 "JTBC에서 악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스님을 폄훼하고 불교를 조롱하는 방송을 편성해 내보낸 것은 사찰에서 신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수많은 불자들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는 모든 스님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훼불행위"라며 "무엇보다 한국불교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불자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드라마에서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오고 있는 불교를 그저 천박한 도박집단으로 한껏 조롱한 이번시태에 대해 전국의 불자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폄훼와 편향,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하는 사회의 악"이라고 강조했다.

JTBC의 공개 참회와 해당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한 종평위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JTBC 측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드라마는 에이스팩토리, JTBC스튜디오(SLL중앙 주식회사)가 제작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연홍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문만세 작가가 극본을 썼다. 임은호 기자



불교, 문화예술로 코로나 상처 보듬다

경기북부 · 양주사암聯, 6월 9일
양주 나리공원서 음악예술제 개최



지역불교계가 지역민을 위한 음악예술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불교계가 앞장서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북부사암연합회(회장 초격)와 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진)는 6월 9일 양주 나리공원 특설무대에서 '제18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 를 봉행했다.

이번 예술제에는 봉행위원장 초격 스님, 집행위원장 상진 스님, 집행부위원장 도일, 혜련 스님,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장 도심 스님을 비롯해 포천, 파주, 동두천 등 각 사암연합회 스님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법석인만큼, 식전 행사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 위령재' 를 봉행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의미를 더했다.

위령제는 청련사 생전예수시왕생칠재 보존회를 어산단, 상진 스님을 법주로 봉행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쓰러져간 희생자 영가와 유주무주 고혼을 천도하는 동시에, 지역 내 드리운 우울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취지다. 일겸 스님의 홍고 시연을 시작으로 어산단의 민대령(영가 청함), 살풀이, 지단진언(보례삼보), 연꽃춤, 복청게 · 천수바라 · 도량게작법 등으로 진행된 위령제는 종교와 문화가 어우러진 가운데 코로나19를 넘어 모두의 일상을 되찾고 미래의 희망을 일궈가기 위해 지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어 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과 백미 등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외이웃을 위해 기탁하기도 했다.

예술제는 1부 개회의식과 2부 공연무대로 이어졌다. 봉행위원장 초격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음악제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창작과 불교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과 화합의 축제' 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의 희망을 꽃피우는 감동을 선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집행위원장 상진 스님은 "오늘 문화축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뜻을 담고 있는 만큼, 모두가 음악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송지희 기자

"청와대 불상 보존, 불교 의견 경청 결정"

최응천 청장, 원행 스님 예방서
원행 스님 "전통문화 보존 노력"



최응천 신임 문화재청장이 최근 청와대 불상에 관련해 "불교계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총무부장 삼혜 스님은 "최근 청와대 개방 이후 청와대 미남불을 경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 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 청장은 "불상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청와대 불상 이전 문제는 불교계 의견이 중요하고, 불교계 여론을 수렴해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청와대 불상은 일제강점기에 현 위치로 이운됐는데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면서 "현 위치인 청와대에 이운된 역사성이 있기에 그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와 인연이 깊은 분이 문화재청에 임명돼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면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최 청장은 지난 4월 26일 보물로 지정된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보물지정서를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에게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법랍 70년을 맞이하신 화산당 월인 대종사님께 조사전을 헌공합니다.

사)대한불교 승가종 화산당 월인 대종사 상좌, 손상좌 324명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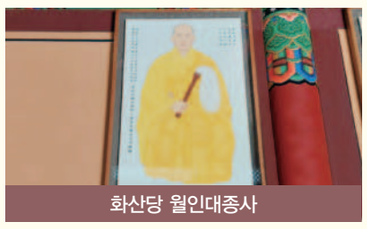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2520번길 251 승가사내 조사전 전경



진종당 용성조사님 보화당 석우대종사



대희당 봉암대종사 무진여당 종준대선사



화산당 월인대종사



주최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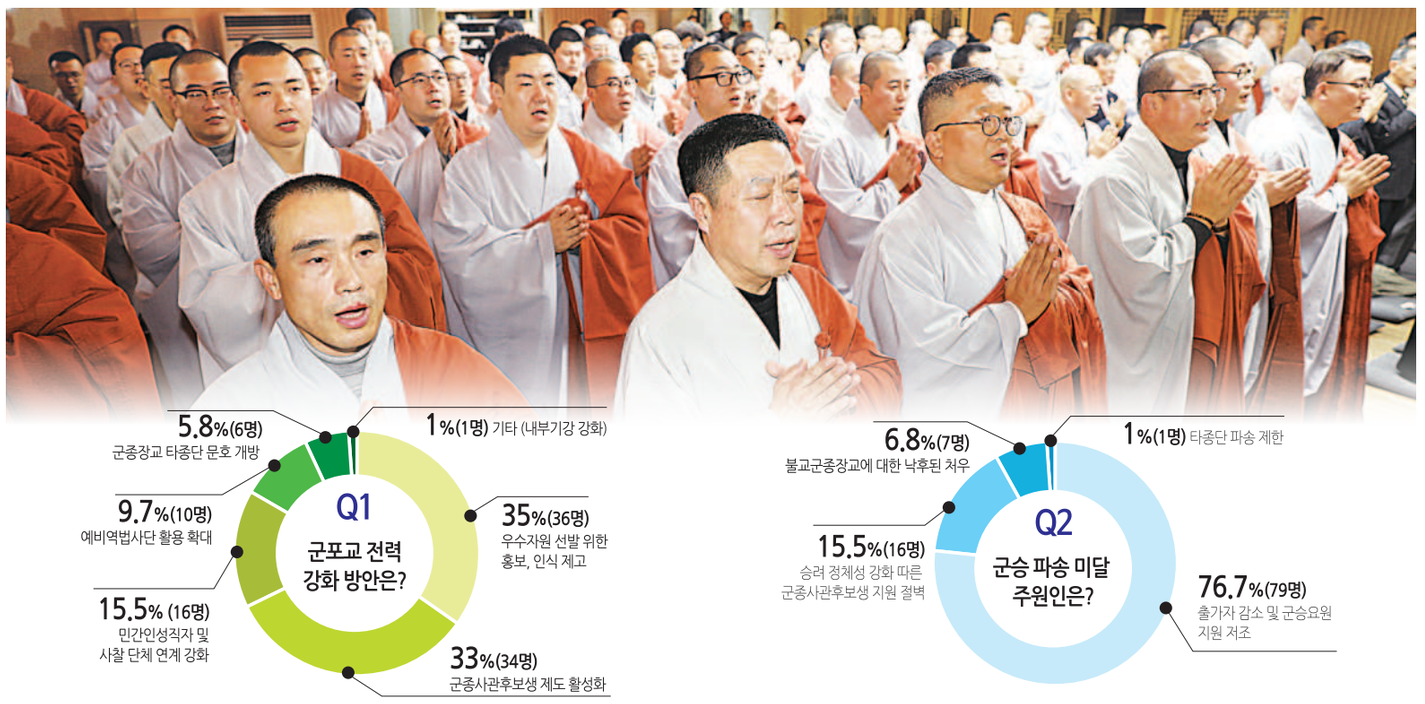
‘군승 연계출가’ ‘후보생 제도 활성화’ 선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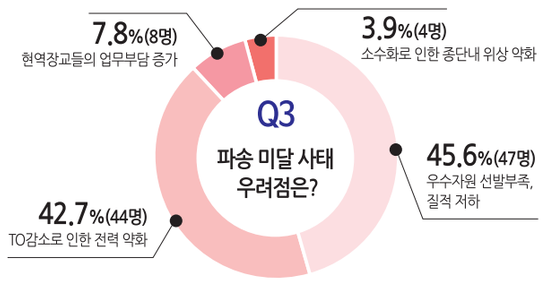
군승 파송 절벽이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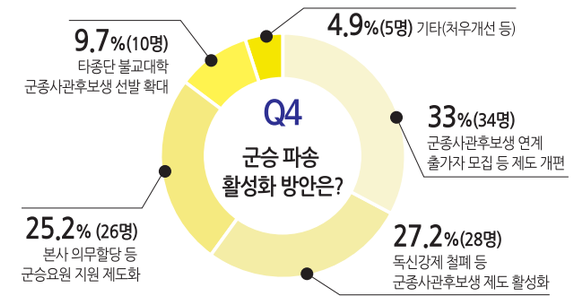
① 군승에게 듣다, 파송 절벽 원인과 해법은?

본지가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역 군승법사 1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객관식으로 진행된 설문 외에도 군포교 현장에서의 우려점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노덕현 · 임은호 기자







군포교, ‘군승 수급’에 달렸다

현역군승법사들은 군포교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승법사 활용’이 대안이라고 꼽았다.

군포교 전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단수응답 시 △우수 군승자원 선발을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36명, 35%)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34명, 3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에 반해 예비역법사단 활용 확대(10명, 9.7%), 민간인성직자 활용 및 사찰 · 단체 연계 강화(16명, 15.5%), 군종장교 타종단 문호개방(6명, 5.8%), 내부기강 확립 등 기타의견(1명) 등 다른 방안은 선택비중이 낮았다.

중복응답으로 확대해보면 △우수 군승자원 선발을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45명, 문항선택률 43.7%)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41명, 문항선택률 39.8%) 등이 최우선 과제로 선택됐다.

이에 대해 J군승법사는 “예비역법사단과 민간인성직자들의 경우 고령으로 MZ세대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포교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구와 국방부를 통한 교육과 관리가 가능하며 비교적 연령대도 낮은 군승법사들이 군포교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진급인 K군승법사는 “군신부들을 의무할당제로 파송하고 있는 가톨릭의 경우 민간인성직자를 축소하고 있다. 미등록 민간인성직자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군법당 포교 인력이 필요한 산간 등 격오지에 민간인성직자나 예비역군승법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실질적인 대안으로 꼽히지 않은 이유가 됐다.

군승 파송 미달 주원인 ‘출가자 감소’

군승 파송 미달의 주요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단수응답 시 △출가자 감소 및 군승요원 지원 저조(79명, 76.7%) △승려 정체성 강화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절벽(16명, 15.5%) △불교군종장교의 낙후된 처우(7명, 6.8%) △타종단 파송 제한(1명, 1%)을 이유로 들었다.

중복응답으로 확대하면 △출가자 감소 및 군승요원 지원 저조(81명, 문항선택률 78.6%) △승려 정체성 강화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절벽(37명, 문항선택률 35.9%) △불교군종장교의 낙후된 처우(31명, 문항선택률 30%) 등이 꼽혔다.

출가자 감소를 원인으로 꼽는 현장 목소리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군승 자체의 상대적인 이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독신비구 자격요건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군종실에서 근무한 D군승법사는 “독신 예외 조항 삭제 이후 군종사관후보생 감소가 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는 현 세태에서 독신 여부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관 연도가 낮은 L군승법사는 병역 미필 스님 입장에서 일반사병 복무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며 군종장교의 3년 단기복무의 복무기간 격차가 더 많이 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ROTC나 부사관 제도도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200만원 상향이 추진되며 상대적인 메리트 감소로 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J군승법사는 올해 국방부에서 모집한 드론부사관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드론부사관의 경우 임관 시 장기복무를 보장하여 경쟁률이 20:1에 달했다. 군종장교로 장기복무를 원하는 이들이 충분히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이에 따른 지원자도 늘어날거란 분석이 가능하다.

J군승법사는 “현실적인 이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남은 건 군에서 포교하겠다는 원력”이라며 “군포교 필요성과 군승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쟁없는 선발, 역량의 질적 저하 우려

군승 파송 미달이 군포교 현장에 끼칠 영향에서는 임관 연도에 상관없이 우수자원 선발 부족으로 인한 미래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저하를 가장 우려했다.

군승들은 파송 미달의 영향과 우려점에 대한 설문에서 단수응답 시 △우수자원 선발 부족에 따른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저하(47명, 45.6%) △불교 TO 감소로 인한 군포교 전력 약화(44명, 42.7%) △현역 군승들의 급격한 업무부담 증가(8명, 7.8%) △군승 소수화로 인한 교단 내 위상 · 인식 약화(4명, 3.9%)를 선택했다.

복수응답에서는 △불교 TO 감소로 인한 군포교 전력 약화(61명, 문항선택률 59.2%) △우수자원 선발 부족에 따른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저하(56명, 문항선택률 54.3%)가 우려점으로 꼽혔다.

군종특별교구 등에 따르면 군종장교 내 불교 TO는 국방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하지만 미달 사태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S군승법사는 “이웃종교인 개신교와 가톨릭은 파송이 원할하다”며 “국방부에서 군종병과를 총괄하기에 특정종교에서 계속 파송 미달 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전방 연대법사 자리가 목사들로 채워지는 걸 상상하기 싫다”고 말했다.

J군승법사는 “종단과 교구에서 그동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모색한 것이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제고”라며 “경쟁을 통해 담보되는 우수자원 선발이 없으면 교육을 통한 질적 제고도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군승법사들은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할당제의 단점도 언급했다. 군포교 원력이 부족한, 의무로 임관한 이들에 대한 우려다.

타종단 파송 및 파송주체 변경엔 ‘부정’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등 8개 불교단체들은 4월 15일 ‘군승 확보에 한국불교 명운이 걸렸다’는 성명을 통해 조계종에 조속한 군승 확보와 군포교에 여타 종단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개신교의 ‘군선교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로 이관해 범불교적인 참여를 도모할 것도 촉구했다.

군승법사들은 조계종 외 종단의 파송이나 파송 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57명, 55.3%) △필요하다(45명, 43.7%)의 의견을 냈다.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현재 조계종 단일파송 체제 하에 정립된 의식, 제도 등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의식, 제도 등이 종단 간에 사전에 합의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기했다.

또 다른 J군승법사는 “현재 교육편람 등을 만들어 의식 · 의례 등을 통일해놓은 상태”라며 군포교를 하려는 각 종단 입장을 보면 종단의 의식 · 의례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군승법사는 “협의체가 형성된다고 해도, 매년 파송 쿼터를 두고 어느 종단까지 배정할지에 대해 입장이 분분할 것”이라며 “만약 원불교와 같이 별도의 TO로 역량있는 종단이 진입한다면, 군장병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부분 공통의식을 만드는 등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출가제도 개편에도 입장 개진

군승 수급 문제에 있어 출가제도 개편 등을 통한 장기적인 수급 방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모아졌다. 단기적으로는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 의무할당제 통한 해결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군승법사들은 군승 지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에서 단수응답 시 △출가제도와 연계한 군종사관후보생 모집 등 제도 개편(34명, 33%) △독신 예외 등 군종사관후보생제도 활성화(28명, 27.2%) △교구본사 의무할당 등 군승요원 충원(26명, 25.2%) △타종단 불교대학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확대(10명, 9.7%) △처우 개선 등 기타(5명, 4.9%)로 응답했다.

중복응답 시 △출가제도와 연계한 군종사관후보생 모집 등 제도 개편(49명, 문항선택률 47.6%) △독신 예외 등 군종사관후보생제도 활성화(39명, 문항선택률 37.9%) △교구본사 의무할당 등 군승요원 충원(34명, 문항선택률 33%) 등이 대안으로 꼽혔다.

최근 임관한 S군승법사는 “화수목금은 군인으로, 토일은 스님으로 사는 과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연대법회만 해도 2000명에 달하는 이들 앞에서 법문을 하는 경험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찰에서 소임을 맡는 것에 비해 행정능력도 빠르게 배양된다. 스님들이 군종장교 경험을 갖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출가특위 위원장 정범 스님이 조계종 종립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출가제도 신설방안을 담은 ‘청소년 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정범 스님은 “국방부 기준에 따라 장교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과 달리 종단 기준으로 군승을 선발하여 파송하는 부분에서 군종사관후보생제도 활성화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출가자 장기수급계획 속에서 이들이 병역 또한 자연스럽게 군종장교 복무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서는 비슷한 궤다. 군승 수급 또한 출가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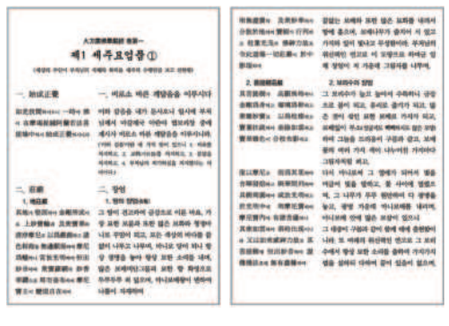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기획국장 현해 권기태 군승법사는 “군승법사들을 비롯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며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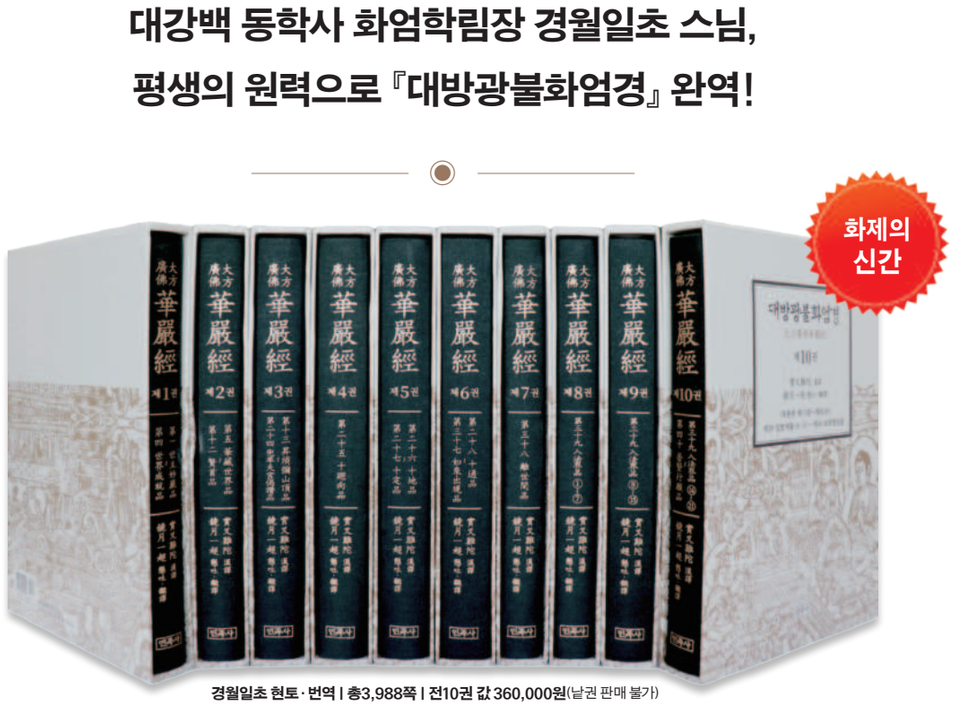
화엄의 세계에서 만난 감동!

대강백 동학사 화엄학림장 경월일초 스님,
평생의 원력으로 『대방광불화엄경』 완역!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누군가 이 책을 보고
옛적에 내가 그랬듯이
먹먹한 가슴과 흐르는 눈물이 있어서 출가를 결심하고,
또 후래에 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발원하고 또 발원하면서
이 책을 탈고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왼쪽에는 경문經文, 오른쪽은 번역문으로 2단 편집
스승이 제자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일러주듯,
바로바로 대조하며 공부하기 쉽도록 직역直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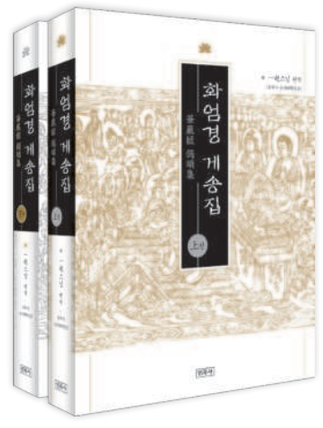


경월일초 현토 · 번역 | 총3,988쪽 | 전10권 값 360,000원(날권 판매 불가)

◉ 함께 읽으면 좋은 경월일초 스님의 책 ◉

“이 『화엄경』 게송만 독송해도 심오한 『화엄경』의 내용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머리말 중에서

『화엄경』(80권본) 39품의 게송을 모두 뽑아서
국내 최초 원문과 현토 · 번역한
『화엄경 게송집』 개정증보판 출간!



화엄경 게송집

경월일초 현토 · 번역 | 총 930쪽 | 전2권 값 85,000원(날권 판매 불가)

www.minjoksa.org | 02)732-2403~4 민족사

조계종 여성불자회, 지역·계층·직능별 전국 조직으로

포교원, 6월 8일 창립준비 공청회

조직화 계획 발표 · 방향성 모색
김응철 교수 · 송지희 기자 발제
선업 스님 "대사회법인 설립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은 6월 8일 '조계종 여성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조직계획을 밝혔다.

조계종이 새롭게 창립할 전국여성불자회는 교구 · 직능 중심의 전국 조직으로, 향후 종단 외호와 여성인권 · 교육을 넘어 생태 · 생명 운동부터 지역현안까지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는 종단 대표 포교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6월 8일 '조계종 여성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직계획을 밝혔다. 특히 공청회에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와 本紙 송지희 기자가 참석해 각각 '여성포교조직의 발전 방향'과 '한국불교여성포교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구성취지와 운영방안'을 통해 조직 출범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선업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는 종단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전국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각 교구별 여성조직 활성화를 통해 교구본사와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 전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다"며 "특히 지역별, 계층별, 직능별로 세분화된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종단적으로 조직화해 전국구 전법역량을 공유하는 가운데 대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재는 포교원장이, 상임지도법사는 포교부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회장단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운영위원회는 각 교구별 2인, 분야별 조직대표 2인으로 구성된다. 종단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반사항은 종령으로 제정하며 보다 활발한 대사회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법인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발기인에 참여한 여성불자는 1095명으로, 향후 교구(지역)위원회와 직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 조직화를 통해 활동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구위원회는 교구별 발기인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직능위원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능별 단체를 중심으로 종무원, 언론인, 정관계, 포교사,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구성된다. 단체별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고, 종단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앞서 本紙 송지희 기자는 '한국불교여성포교 흐름과 전망' 주제 발제를 통해 1922년 창립했던 조선여자청년회를 시작으로 지난 100년간 활동했던 불교여성단체들의 현황과 행보를 짚어 눈길을 끌었다.

송 기자는 "100년 동안 적지않은 수의 불교여성단체들이 창립하고 운영됐지만 계승과 지속성에 아쉬움을 남긴다"며 "종단과 여성불자들의 상호노력을 기반으로, 기존 단체들의 발자취를 되짚고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창립하는 여성포교단체가 현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과 활동목적,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기자는 특히 "그동안의 종단 포교종책과 여성단체들의 활동흐름을 살펴볼 때, 한국불교계는 여성포교에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보여진다"며 "여러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교단 유지와 운영을 지원해 온 형태로 보이며, 현재까지 교단 차원에서 여성포교에 각별하고 지속적인 원력을 갖고 지원한 사례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단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신행과 보시 · 봉사를 넘어선 현대사회에 맞는 여성불자 역할 모색 △여성불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리더 발굴과 양성 △불교계 전반의 젠더의식 개선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응철 교수는 '여성포교조직의 발전 방향' 주제발제에서 "하향식 조직으로 출범해 상향식 운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조직이 시군구읍내 별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고 분화하는 형태로 발전 ·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문화가 안착돼야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리더를 발굴해 자격과 역할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년전법단지도법사 효석 스님이 '사부대중 역할 속 여성재가불자의 위상'을, 박해덕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이 '나는 왜 여성포교활동가로서의 길을 가나', 유경숙 전국불교연합합창단장이 '전국단위 포교조직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우리 종단은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을 통해 한국 여성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오늘 공청회는 한국여성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이제 막 골격을 만들어 낸 전국여성불자회의 뼈와 살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보존 결의문 채택

6월 8일 창종법회서 전체 법화종도 결의

"해종 · 범법행위자들 불법증여 허가한 경남도 · 통영시 규탄"
소송서 불법행위 이미 인정
처분일체 취소 · 재발방지 촉구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전경.

법화종도들이 총본산 안정사 보존계승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종 · 범법행위자들의 불법증여 행위를 허가한 경상남도와 통영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자격 없이 안정사를 무단점거 중인 이제열(前 승현 스님) 씨 등이 자행한 안정사 부지 증여행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법화종(총무원장 관료)은 6월 8일 '법화종 대표종찰 경남 통영 안정사를 지키자' 제하의 법화종도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화종은 결의문에서 "원효선사가 창건한 전통사찰 안정사는 우리 법화종도들에게는 큰 자긍심을 갖게 하는 총본산이자 대표종찰로, 보물을 비롯한 수천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라며 "때문에 늘 삿된 무리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표적이 되어왔고 2020년에는 전과자와 해종세력들에게 점거당해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한 부지가 편법 · 불법 증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화종은 "이러한 해종행위와 범법행위가 가능했던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통영시가 증여를 허가하고 담보제공 허가까지 고려하는 참담한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행정처분 취소나 범법행위자들을 고발하지 않고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같은 행정기관의 무능과 방관 속에 범죄자들은 안정사를 탈종시키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으며, 법화종은 종단의 상징과도 같은 천년고찰을 잃을 위기에 처한 데 이어 안정사는 유사포교당을 통해 혹세무민하는 범죄자들의 범행도구로 전락했다.

법화종은 "삼보정재를 유린하는 범죄자들의 기망에 농락당한 관계부처는 무능을 넘어 미필적 고의를 띤 불교괄시, 종교편향에 가깝다"며 문체부와 경남도, 통영시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이에 법화종은 관계부처에 △안정사 부지 불법증여 허가를 비롯한 처분 일체의 취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담당 공직자 즉각 파면 △정부 · 지자체를 기망하고 편취한 자들에 대한 상사고소 · 고발조치 △문화재 보호 강화 조치 등을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셔먼 美부장관 "성소수자 인권 증진 함께할 것"

6월7일, 미국 대사관저서 간담회
성소수자상징 레인보우 깃발게양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국내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권 · 종교 · 시민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 내 성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미국 정부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프라이드 먼스)을 맞아 6월 7일 미국 대사관저에서 '국내 성소수자 인권 및 차별금지 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종교계를 대표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하리수 트랜스젠더 방송인, 크리스 델 코스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 성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미국 정부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 제시카 스턴 미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외교 특사의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관저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프로그레스 플래그(무지개 깃발)를 함께 게양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진흥원, 하반기 4대 공모사업 실시

6월 27일부터 공모 진행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한국불교 진흥을 위한 하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공모사업은 2003년 제정돼 매년 시상하는 '대원상'을 비롯해 청년불교 활성화와 불교와 관련된 학술 · 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과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이다.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는 출가자와 재가자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대원상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에게는 2000만 원, 특별상은 1000만 원, 장려상은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5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은 전국 대학교, 초 · 중 · 고등학교 불교동아리를 대상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제4기 불교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불교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접수한다.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단체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6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는 불교학술과 불교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선정된 저서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번역서는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지원되며 만화 · 동화 · 불교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제주 걷기순례길 개발 박차

조계종 포교원, '제주 관음순례길' 리플렛 발간

6월 11일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200여 명 제주 현지서 행선



재가신도 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사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사찰로 인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행 프로그램 '순례'를 활성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해 새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제주 관음순례길'을 정리, 리플렛으로 발간했다.

'제주 관음순례길'은 총 세 가지 순례길로 구성되어 있다. 제1코스인 '관음사 순례길'은 관음사를 출발하여 남국사를 거쳐 제주 정부종합청사 옆 시민복지타운 광장에 도착하는 길이다.

제2코스인 '약천사,법화사 순례길'은 법화사를 출발하여 약천사에 이르는 길이다. 제3코스인 '불탑사 순례길'은 사라봉 공원을 출발하여 곤을길, 화북포구, 벌낭포구 등을 거쳐서 불탑사에 도착하는 길이다.

포교원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교역직 스님들, 제주지역 포교사단 포교사 200여 명과 함께 6월 11일 '제주 관음순례길' 제1코스 '관음사 순례길'을 순례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앞으로도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의 아름다운 순례길을 소개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편안한 마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찰을 찾아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탈핵 확산 위한 8200km 순례 대장정

생명탈핵로드 순례단 이원영 단장
8월 말, 6년 순례 바티칸서 마무리

탈핵 · 탈원전을 슬로건으로 생명 존엄성과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도보 세계 순례에 나선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단장 이원영, 수원대 교수)이 바티칸 방문을 마지막으로 26개국 8200km 순례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원영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장은 6월 8일 서울 불교여성개발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은 탈핵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7년 5월 부처님오신날 서울에서 출발, 일본과 대만, 베트남, 라오스, 인도 등을 순례하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5년간 23개국 7000km을 걸어 독일 뮌헨에 당도했다. 순례단은 6월 25일부터 뮌헨을 시작해 알프스를 넘어 바티칸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목표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대화로, 현재 교황청에 공문을 접수한 상태다. 앞서 이 단장은 순례과정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바르톨로메오스 정교회 수장을 만나 생명의 존엄성과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단장은 6년간 전 세계를 순례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세미나 개최, 탈핵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탈핵 시민단체와 학자,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한 몸에 받아 지역방송과 라디오 뉴스 등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핵과 원전은 기술보다는 윤리의 문제"라고 강조한 이 단장은 "순례를 모두 마친 후에는 매일의 과정을 기록한 일지를 토대로 백서를 출간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이면 정년을 맞는 이 단장은 "정년 후에는 탈핵 · 탈원전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기구 조직화도 추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신한은행 110-310-889298.

임은호 기자

"'명상'으로 생명 소중함 일깨워요"

불교상담원, 생명살림 법회
7월초부터 조계사서 시작

불평등과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에게 명상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살피는 법을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회가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6월 9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 생명살림 법회'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생명살림 법회는 불살생을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확산시키고 자살예방의 필요성 고취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생명살림 법회는 7월 초부터 서울 조계사, 서울 봉은사, 수원 봉녕사, 부산 범어사에서 4개월에 걸쳐 봉행된다. 법회에는 스님과 불자, 일반인,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가족 등 28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명상을 활용한 몸 · 마음 · 쉼'을 주제로 한 이번 법회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법회로 진행된다.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방법을 훈련하는 화두명상, '자비희사(慈悲喜捨)'를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자비심을 발현하고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무량심, 자살 고위험군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필요 시 의지처로 삼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도 · 염불 명상, 천천히 걷는 명상을 포함해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 넣는 움직임 명상 등 4가지 방식이다. 법회와 함께 생명존중 리플릿 배부, 생명서약서 작성 등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선업 스님은 "수년째 이어온 생명살림 법회를 통해 명상의 우수성과 탁월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자살에도 대비, 불상생을 실천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이웃·나라 위해 목숨 바친 의인들 극락왕생을…”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⑤ 생명나눔운동본부 천도재 현장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남양주 불암사에서 6 · 25한국전쟁 때 전사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희생자, 장기기증자 등 나라와 사회를 위해 목숨 바친 의인 영가 축원 천도재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6월6일 남양주 불암사
호국영령 · 의인 영가 365위 봉안
코로나19 희생자 위한 위패 눈길

1995년 시작…올해 28회째 이어
참석자들 “자비 나눔에 큰 감동”
현장서 희망등록 동참 잇따르기도

“사회와 타인을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이 호국영령입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시길 간절히 발원합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남양주 불암사 극락전에서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과 의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제28회 생명나눔 천도재’를 봉행했다.

불교를 대표하는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5년부터 해마다 9월 9일 중양절에 사후 시신,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천도재를 실시해왔다. 2018년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공무 희생자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천도재 날짜도 현충일로 바꿨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도 함께 모시고 있다.

장기 기증자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 불암사 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올해 천도재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군과 경찰 등 호국영령과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인(義人) 등 모두 365명의 영가를 모셨다.

천도재에서는 특히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영가 위패 13기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불암산 유격대원은 1950년 6 · 25한국전쟁 발발 초기 불암산을 근거지로 삼아 북한군에 맞서 게릴라식 전투를 벌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원 전사한 육군사관학교 1~2기 생도 13명과 기간병 20여 명들이다. 당시 불암사는 유격대원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며 게릴라전을 지원했고 마을 주민 100여 명의 목숨을 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기억을 살려 생명나눔은 2017년부터 이들의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불암사도 2020년 현충일을 맞아 사찰 앞에 위령탑을 건립, 호랑이 유격대원들의 애국 충정을 기리고 있다.

이날 천도재는 시련과 대령, 법문, 영가천도 의식 등으로 3시간가량 진행됐다. 동참자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 헌화 · 헌다를 하는 동안,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독경소리를 타고 불암사 경내를 장엄했다.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나비춤과 바라춤이 이어졌다. 이후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진흥무가 이어지면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안거 집중수행에 들어간 일면 스님을 대신해 법석에 오른 태안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은 법어에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 활약상과 함께 이들을 추모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님은 “오늘은 국가와 민족, 국민들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받친 의인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라며 “나라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헌신 덕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음을 알고, 인연이 있든 없든, 민족으로 위해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영가를 천도하고 그분들의 고귀한 삶을 기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에 대한 의미도 나눴다. 법진 스님은 “장기기증은 자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숭고한 일”이라면서 “세상의 배려와 도움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보시를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연으로 천도재를 올린 100여 명의 불자들로 설법전은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박태후 불자는 “생명나눔실천본부를 10년 넘게 후원해 온 인연으로 수년 전부터 천도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불암사에서 영가들을 잊지 않고 축원하는 모습을 보면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에도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천도재에 동참한 김미나 불자는 “매해 천도재에 동참하는 어머니를 따라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있다”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떠난 이름 모를 영가들의 자비나눔에 크게 감동해 인연은 없지만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암사 경내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동참이 잇따라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천도재 참가자 외에도 불암산에 방문한 등산객들도 장기기증 희망서약에 동참하면서 마음을 나눴다.


천도재에는 기증자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 불암사 신도 등이 동참, 영가에 헌화 · 헌다했다.


동참자들은 천도재 동참을 통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 영가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다.


법사로 나선 법진 스님은 법문에서 의인들을 추모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통한 보시행도 당부했다.


불교전통의식인 바라춤에 이어진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진흥무는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불암사 경내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동참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장기 · 조직기증으로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주세요
02 · 734 · 8050



한사람의 장기기증이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인체조직기증이 100명의 사람들에게 새 삶을 선물합니다.
장기 ·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으로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전문 홍보교육 기관으로, 뇌사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후 안구 ·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국내 · 외 지원사업, 자살예방교육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장기 · 조직기증 희망등록 사업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희망등록을 통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
백혈병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피를 생성하는 세포)를 기증할 수 있도록 희망등록 사업 진행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지원 및 해외 의료구호 활동

자살예방교육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확산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희망의씨앗

행복 찾는 선지식 禪·敎·律 법석

범어사 여섯 선지식 초청 특별 강연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범어사 선문화관 6월 28일~8월 4일

禪·敎·律 강연으로 다시 행복 찾아
참가비 무료, 현장 선착순등록 가능


태원 스님


원오 스님


정운 스님


수진 스님


원창 스님


월암 스님 〈사진은 강의 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여섯 명의 선지식과 함께하는 6주간의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특별강연은 여섯 선지식들의 선·교·율 각 분야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잃었던 행복을 찾고자 마련됐다.

6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특별강연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등록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범어사는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대면 법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신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법열(法悅)의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기원한다. 특히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이번 강의를 위해 그동안 읽고 살펴 본 유튜브 불교 강의와 불서의 저자를 정리하고 직접 초청명단을 확정했다.

경선 스님은 "불서와 강의를 통해 읽은 감동을 신도들에게 전달하고 불자로서 바른 신행과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사는 태원 스님(前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원오 스님(원오사 주지), 정운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원창 스님(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월암 스님(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이다.

△태원 스님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정토 사상-정토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태원 스님은 〈정토삼부경 역해〉를 저술했으며 평생 정토신앙을 공부하며 학문적으로 정토교학을 연구했다. 한국 정토불교계의 대표적 학승이라 불리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언어로 집필했다. 태원 스님은 해인사 강원 대교과 및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교토불교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가산불교문화원 감사, 대각회 감사, 보국사 주지를 역임했다. 저서로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왕생론 주 강설〉, 〈정토의 본질과 교학발전〉이 있고 역서로 〈정토삼부경개설〉, 〈중국정토교리사〉, 〈염불-정토에 왕생하는 길〉 등과 이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원오 스님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유식사상-마음의 본체를 이해하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원오 스님은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종법사로 임관해 용인 호국선봉사 법사를 역임했고, 계룡대 호국사 주지, 대구 도림사 주지, 서울 봉은사 부주지를 역임했으며, 31대 군종감 대령으로 전역했다. 무공훈장 삼일장을 수상했으며 현재 유튜브 원오TV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운 스님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선사상-중국선과 한국선의 양상과 특징'을 주제로 강의한다. 정운 스님은 〈허운-중국 근현대불교의 선지식〉, 〈붓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맨발의 붓다〉, 〈환희-중국사찰기행1〉, 〈떠남-중국사찰기행2〉 등 다수 출간했다. 정운 스님은 1982년 명우 스님을 은사로 서울 성심사에서 출가했다.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년간 미얀마 판디타라마 명상센터와 쉐우민 명상센터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진 스님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엄사상-최고의 경전 대방광불화엄경의 이치를 읽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수진 스님은 대승불교 경전 〈화엄경〉을 풀이한 〈화엄경 소초〉를 한글 완역했다. 〈화엄경 소초〉는 〈화엄경〉의 주석서로 불리며 방대한 양으로 유명하다. 수진 스님은 동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 금산사 화엄학림을 졸업했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했으며 현재 해인정사 주지, 동명대학교 석좌교수, 동명대 세계선센터 선원장이다.

원창 스님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계율-계율의 의미와 지계정신'을 주제로 강의한다. 원창 스님은 해인사 기획국장을 역임하며 〈화두공부 하는 법(성철 스님의)〉저술에 참여했으며,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부처님처럼 보살님처럼〉을 저술했다.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강원, 율원을 졸업했다. 산청 율곡사 주지와 법주사 강사를 역임했고 현재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이다.

△월암 스님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선과 수행-조계종의 근간 간화선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한다. 월암 스님은 〈간화정로〉, 〈돈오선〉, 〈친절한 간화선〉 등을 저술했다.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벽송사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이다.

범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여 년 동안 법회 인원이 제한되거나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고 종식되어 가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멈추었던 삶이 전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사, 미륵대범종각 기공식

"21세기 문화예술로 남을 것"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가 6월 5일 경내 일대에서 '미륵대범종각 기공식'을 봉행했다.

광명사는 미륵대범종각 불사 이후 미륵부처님, 약사여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범종에 주조 봉안한다. 광명사는 기공식을 통해 미륵대범종 소리가 시방세계 널리 전해져 법음을 듣는 사람마다 약사여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고 용화세계, 청정 불국토가 세워지길 서원했다.

행사는 불사현장에서 신중작법 이후 테이프 컷팅 및 시삽을 진행했으며, 지관 전으로 자리를 옮겨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대중들은 고불문에 담긴 불사 원만 성취를 함께 기원했으며, 이재동 신도회장은 경과보고에서 불사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춘광 스님의 봉행사에 이어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과 백종헌 국회의원의 축사 등 내빈들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주지 춘광 스님은 "오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봉행했다. 미륵대범종각 불사는 일체생명과 우주만물의 행복과 해탈을 기원하고 대자대비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사이다. 범종각 건립으로 광명사는 천태일승묘법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청정한 전법도량으로 장엄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질병과 경제난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다. 제불보살님과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욱 정진 수행하여 청정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륵대범종각 불사는 2021년 8월 주지 춘광 스님과 불자들의 발원으로 시작됐으며, 같은 해 9월 7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께 건립 불사 증명을 받았다. 미륵대범종각은 전통 한식 목조 구조로 지상 1층으로 건립되며 규모는 연면적 60.84㎡이다. 우림목재 대목장 신응수 도편수가 불사를 담당하며 전통 목구조 주심포 양식에 육송목재를 활용한다. 전통기와와 전통조립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범종은 원광식 국가문형문화재 주철장이 담당한다. 범종은 3300관에 높이 3.3m, 직경 1.9m, 중량 1만 2375kg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옥천암, 약사여래삼존불 점안법회



황령산 옥천암(주지 대각)이 6월 3일 경내 일대에서 약사여래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옥천암 사부대중은 약사여래불, 일광보살, 월광보살 점안을 통해 무명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다.

행사는 점안의식에 이어 개식을 알리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발원문 및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대각 스님은 법회에서 함께 동참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선물과 공로상을 전달했으며 인사말을 통해 불사의 공덕을 찬탄했다. 이어 부산 문현 2동 소외이웃을 위한 성금 300만 원과 성품을 전달했다.

대각 스님은 "오늘 점안법회가 열리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불자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불사 공덕으로 옥천암을 찾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한다"고 축원했다.

한편, 행사에는 주지 대각 스님을 비롯해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보광사 도원 스님, 장상목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 백일장 시상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이하 생명나눔실천 부산)가 6월 4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제14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은 지난 5월 28일 중·고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실시했다. 대상은 고등부 산문 하승민(해동고 2학년), 중등부 산문 이휘소(대천중 3학년), 고등부 운문 김문성(해동고 1학년), 중등부 운문 최연미(대천리중 2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생명나눔 부본부장 자인 스님, 총무이사 성문 스님, 이경순 운영이사, 최성은 운영이사, 박명규 금정중학교장, 천용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처장 등 내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부본부장 자인 스님은 "모든 생명은 차별 없이 소중하다. 백일장에 참석한 인연을 계기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가치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란다"며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더욱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신도회 봉사단 자비나눔

라면 및 백미 등 물품전달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병호)봉사단이 6월 8일 울산불교신도회 사무실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자비나눔 물품은 백미 10kg 30포와 라면 30박스 및 10만 원 선물권 25장 등으로, 총 3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물품은 울산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과 울산불교신도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해 마련했으며, 울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협의회에 전달해 소년소녀가장 3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 회장과 양우석 울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협의회 부회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이병호 신도회장은 "신도회 봉사단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보살피고 지속적으로 소년, 소녀가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작은 보탬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밀양불교사암聯, 산불재해현장 격려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가 6월 4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불재해현장에서 격려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격려품은 200만 원 상당의 간식이며, 전달식에는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각 스님과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 환명 스님, 성정 스님, 지공 스님, 지설혜 스님 외 회원 스님들과 박일호 밀양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진각 스님은 "지역 화재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불교사암연합회에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심정으로 간식을 전달하게 됐다"며 "공무원과 봉사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홍법사, 제32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창건주 하도명화 동상 제막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6월 6일 경내 일대에서 '제32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봉행했다. 홍법사는 매년 故 하도명화 창건주의 호국 염원을 담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는 하도명화 창건주의 보살행과 포교 정신을 기리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상 제막식을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심산 스님을 비롯해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과 양재생 신도회장, 이영경 동국대학교와이즈캠퍼스 총장, 린 천푸 대만총영사, 콜비쉐우드 주한 미해군 사령부 참모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님은 허공은 어떤 것도 다 수용하고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라고 하셨다"며 "보살님이 살아계신다면 100세를 맞는다. 그분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어 불법홍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김상수 아람바 대표가 30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홍법사에 기부해 감사패를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BTN불교TV 부산합창단, 정기연주회



BTN불교TV 부산합창단(단장 이옥숙)이 6월 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연주회는 '연꽃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합창단은 삼경에 피는 꽃, 가족이라는 이름, 부처님 진리길 등 다채로운 불교음악을 선사했다. 아울러 특별공연에는 BTN불교TV 남성중창단과 풍물밴드 '이상'이 출연해 무대 공연을 펼쳤다.

김수현 BTN불교TV 부산지사장은 "거문고의 줄이 느슨하지도 꽉 조이지도 않아야 제소리가 나듯 단원 전체의 절제 속에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소리에서 인내와 화합 그리고 수행을 본다"며 "이렇게 아름다운 불음으로 세상을 맑히는 BTN불교TV 부산합창단의 지난 걸음들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Interview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논산훈련소 수계와 위문 군포교 10년



이도경 부산지사장

종정협의회 14대 회장 및 이사장 수락 후 소임 시작
월인스님 법납 70주년 기념 제자들이 조사전 지어 봉헌
창종 22주년만에 승려 5백명, 사찰 5백개로 괄목할 성장도

"논산훈련소서 수천 명 수계식을 했을 때 그중에 10명만 불자가 나와도 저희가 군포교 하는 데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생활 때 수계를 받는다는 의미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 부처님을 한번쯤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월인 대종사는 여생을 군포교에 전념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10년 남짓 군포교에 매진 중인 월인 대종사가 논산훈련소를 처음 찾은 것은 2012년경. 당시 도반인 영주 관음사 주지 도기 스님을 따라 논산 훈련소 위문을 가서 충격을 받았다. 월인 스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양손이 없는 도기 스님이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여 년 이상을 꾸준히 군장병 위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감화를 받았다"며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 예비 청년 불자를 양성하는 논산훈련소야말로 우리 스님들이 꼭 포교를 해야하는 곳이란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월인 스님은 이듬해인 2013년 11월 24일 대한불교 승가종 차원서 첫 수계식을 시작한 이후로 수계와 위문을 합쳐 총 14차례 정도 논산훈련소를 찾았다.

"논산훈련소 첫 법상에 올라가서 훈련병들과 마주했을 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열정 가득한 선한 눈망울들이었지요. 해맑은 얼굴로 강당 가득 법문 들으러 찾아온 그들을 바라보며, 저 역시 초심으로 돌아간 신선한 느낌이 들어 환희심이 났죠"

그리고 월인 스님은 코르나19가 유행전 두 차례에 걸쳐 군생활 중 훈련받다 전사한 군장병과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위령재도 봉행했다. 월인 스님은 "종단 재정은 빠듯하고 후학 양성이라는 숙제도 갖고 있지만 군장병들을 위한 관심과 격려야말로 우리사회에 불자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기에 군포교의 원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2000년도 5월 2일 부산 명륜동서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가종을 창립한 월인 스님은 출범 당시 승려 150명에 300여 소속 사찰로 출발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승려 숫자만 해도 500여 명에 소속 사찰도 500개에 달하는 중견 종단으로 성장시켰다.

더욱더 특별한 것은 월인 스님에게 수계 받은 상좌만도 양산 복천암 주지 무착 스님을 비롯해 324명이나 된다. 한국불교계에선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최근 이 상좌들이 월인 스님 법납 70주년에 맞춰 2021년 5월 승가종 총본산인 진주 승가사에 조사전을 지어 용성 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설석우 스님, 대희당 봉암대종사, 무진여당 정준 대선사와 함께 월인 대종사의 진영도 함께 봉안했다.

월인 스님은 "제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닭이 1000마리면 그 중에 봉황이 한 마리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종단을 창립해 상좌를 많이 길러내면 그 중에 봉황같은 실력있는 후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앞으로도 승가교육에 전념할 생각입니다"라며 "원래 제가 조계종 출신이라 저희 승가종도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따라가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창종 22주년을 맞은 올해를 승가종 제 2 창종 원년이라 생각하고 내실있는 종단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대한불교종정협의회 14대 회장 및 이사장을 수락하고 소임을 시작한 월인 스님은 이번 추대로 회장과 이사장직을 동시에 맡게 됐다. 스님은 "이미 9, 10대 회장을 지냈기에 수차례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시절 인연으로 다시 중책을 맡게 되었다"라며 "가장 먼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군포교와 호국영령 위령대재에 다시 원력을 모을 수 있도록 종정 스님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화종 창종 76주년 기념 법회 봉행

6월 8일 불곡사서 1천여 명 참석
정론직필 공로 本紙 감사패 수여

그동안 내홍을 겪고 최근에 안정을 찾은 탓인지 종단 주요 스님들의 각종 축사와 인사말에는 '참회와 혁신' '초발심'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6월 8일 경남 창원 비음산 불곡사에서 창종 76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창종을 기념하며 참회와 혁신으로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을 발원하는 자리였다.



대한불교법화종은 6월 8일 경남 창원 비음산 불곡사에서 창종 76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本紙 김주일 편집국장이 감사패를 받고 있다.

대한불교법화종은 초대 종정인 혜일 정각 대종사가 1946년 서울 성북동 무량사를 창건해 의천 대각국사를 종조로 창종을 선포했다.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한 법화종은 현재 13개 전국 교구종무원 산하에 1천여 사찰과 승려 및 신도 등 100여 만 명의 종도들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염불선으로 수행정진 중이다.

종단연혁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종정 도선 대종사의 법어로 이어졌다. 도선 스님은 "형상에 집착하는 범부의 경계를 넘어 실상을 체득하면 나고 죽음이 없는 무생 법인에 머물 수 있고, 진리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면 위없는 깨달음이요, 자유자재한 해탈이며, 불생불멸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화경〉 상불경보살의 행원을 본받아 이웃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칭송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종단의 변혁과 혁신은 참회로 출발하는 것인 만큼, 참다운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도 사부대중의 의지와 결의가 반드시 뛰따라야 한다"며 "종도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혁신과 변화로 종단 미래를 여는 길잡이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중앙종회 의장 서안 스님도 "20대 총무원 집행부에서 각 교구를 순회하며 대중공사를 통해 경청과 소통으로 원융살림을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종회에서도 교구 대중공사에 적극 참여해 종헌종법의 입법 미비로 종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살펴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허성무 창원 시장은 "법화종은 회삼귀일의 대중교리를 봉체하고, 〈묘법연화경〉을 수행 모체로 한 법화 신앙을 널리 홍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서깊은 불교 전통 종단서 혁신을 통해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겠다는 결사운동 선언은 자비가 넘치는 도시, 사람중심 창원과 그 정신이 닿아 있는 것 같다"고 축하했다.

국민의힘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은 "창원특례시 성산구에 자리한 신라고찰 불곡사에서 창종 기념 법회를 봉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법화종의 대중불교 애국불교 생활불교가 더욱 빛을 발하길 기대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갈수록 혼탁해지는 현대사회를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중에는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식도 있었는데, 현대불교신문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법화종이 직면한 문제들을 공론화 하고 정론직필을 통해 감시와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올바른 정보전달에 힘쓰며 종단안정에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현대불교신문 측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법화종 종정 도선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관효 스님, 법화종 김창교구 종무원장 향산 스님, 원로의원 보명 스님, 중앙종회 의장 서안 스님, 강원교구 종무원장 서리 승일 스님, 창원불교연합회장 정인 스님과 허성무 창원시장, 강기윤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창원 불곡사=김주일 기자

광주불교聯, 광주사찰 홍보영상 제작

2023년까지 40여 곳 홍보

광주불교연합회가 광주지역 사찰들의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2023년까지 광주지역 중요사찰 40여 곳의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한 이번 홍보영상은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없는 여건의 사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사찰의 역사, 문화재, 풍경, 중요행사, 주지스님 인터뷰 등을 촬영해 3분 내외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022년까지 10여 개의 사찰 영상을 사전에 제작해 10월까지 1차 공개한다.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장 무진 스님(광주 약사사 주지)은 "광주불교연합회서 활동하는 사진반 회원들이 각각 사찰을 맡아 지난 4월부터 촬영을 진행했다"며 "최근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지역사찰들이 여건이 되지 않아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초파일 행사 사진, 드론으로 촬영하는 항공영상과 사진, 사찰문화재 및 전경, 전각 사진 등이 들어간다.

사진문화기획단 윤혜숙 작가는 "사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광주 불교계를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여하는 회원들도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포교활동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16회 천지명양 무차수륙대재 봉행

함안 달전사 6월 6일 개최…200여 명 운집

(사)대한불교불음원 및 함안수륙보존회가 위치한 함안 달전사(주지 원명)는 6월 6일 제16회 천지명양 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함안수륙보존회장 만백 스님(제주 관음사 조실)을 비롯해 칠보사 정광 스님, 달전사 원명 스님, 천관사 홍제 스님, 능인정사 남하 스님, 보문사 성광 스님, 금강선원 법기 스님, 항림사 혜광 스님, 화봉사 보현 스님, 법성사 법등 스님 등 스님들과 조용찬 함안연합신도회장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타종과 법고의식, 대령, 신중작업, 괘불 이운, 도량 건립, 달전사 주지 원명 스님 봉행사, 함안수륙보존회장 만백 스님 법문, 사자단작법, 오공, 오로단작법, 소청상위, 소청중위, 소청하위, 상·중진공, 하위시곡, 하위수계, 회청 및 장엄염불, 봉송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달전사 원명 스님은 봉행사에서 "동족상잔의 아픔이 남아 있는 이곳에서 무차수륙대재를 열고 영가왕생과 유가족 아픔을 치유하고자 한다. 영가들이 남북통일과 국태민안을 위한 구국 수호신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만백 스님은 이날 법문으로 "시방세계 유주무주 고혼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수륙대재서 일체 영혼들을 감로법으로 천도하자"고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그루축제에 참가한 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우리 주변에 1000그루 나무 심어요"

울산불교환경연대, 6월 5일 제2회 천그루축제 개최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 백련사 주지)가 6월 5일 녹색사찰 울주 백련사 특설무대에서 제2회 천그루 축제 환경음악회를 개최했다.

환경음악회에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울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백련사 회주 대혜 스님, 석남사 일영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정토마을 간월사 능행 스님, 법왕사 혜경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가수 라마 외 3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천그루 축제행사는 여는 노래 합창을 시작으로 △황룡사 나모라 어린이합창단 공연 △백련사 향기소리 합창단 공연 △내빈 소개 △백련사 천도 스님 인사말 △울산사암연합회장 산옹 스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에코밴드 요술당나귀 공연 △송가영 국악인의 창△놀이패 동해누리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일깨워 준 코로나19"라며 "코로나로 느낀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에서 열린 도슨트 양성교육에 참가한 불자들의 모습.

호국사찰 고성 옥천사, 해설사 양성나서

6월 4일 도슨트 양성교육 실시…매주 토요일 총 4차 진행

고성 옥천사(주지 종성)는 6월 4일 제2차 옥천사 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을 시작,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한다. 이날 교육 개강에는 옥천사 주지 종성 스님, 청련암 감원 원명 스님, 김용태 불교학술원HK교수,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정선유 학예실장, 수강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고성 옥천사에는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의승군을 조직해 왜군에 맞서 싸운 자방루 등이 남아있다. 당시 자방루 앞마당은 승병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됐다.

옥천사 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은 호국사찰 옥천사를 포함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장선 승병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도슨트 양성교육과 연계하여 11월에는 강의를 맡은 강사진들이 집필을 맡아 의승군 관련 학술총서도 발간될 예정이다.

종성 스님은 "호국사찰인 고성 옥천사서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스스로 의승군을 조직하여 왜군과 맞서 싸웠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의승군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용태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활동과 충의의 공적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높이는 전환적인 계기"라며 "조선후기 사회에서 당당히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내소사 우암당 혜산 스님 17주기 추모재



전북지역 대표적인 선지식 우암당 혜산 스님의 17주기 추모재가 6월 4일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문중 원로스님과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 범여 스님, 대우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도솔회, 석우회 스님,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 및 전등회 재가불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도를 대표해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의 14주기를 맞아 동참해 주신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가행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암당 혜산 스님은 1963년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총림 해인사 선원장, 조계사 주지, 내소사 회주, 한일불교교류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2005년 6월 13일 내소사에서 세수 73세, 법랍 43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니,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 인상 추진

내국인 15배…최대 100달러 인상
"부자 위한 문화유산" 항의 쇄도
2019년, 국립공원 회원권 추진 등
'관광지 보존' 명목에 비판 목소리

박정현 객원기자


세계 최대 사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전경. 사진출처=CNN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불교사원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의 입장료를 최대 100달러(한화 약 12만5000원)까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불교계 안팎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6월 7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를 외국인 100달러, 내국인 75만 루피아(6만5천원)로 각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방문객도 1200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엔 항상 현지 가이드를 동행해야 한다.

현재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는 10세 이상 외국인의 경우 25달러(3만1000원) 또는 35만 루피아(3만원), 내국인의 경우 5만 루피아(4300원)이다. 여기서 외국인 입장료는 4배, 내국인 입장료는 무려 15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루훗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찰 인근 지역 여행을 위해 전기 셔틀버스를 도입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루훗 장관은 인근 지역민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동행할 관광 가이드를 고용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훗 장관은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는 한편,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유적지 보존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인들과 불교계 안팎에선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보로부두르 사원 방문객 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들이 훨씬 높은데 내국인들의 입장료를 15배나 인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자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냐"며 볼멘소리를 터트렸다.

동남아시아 여행 웹사이트 트래블피쉬(Travelfish)의 공동설립자인 스튜트 맥도날드는 "보로부두르 방문객 중 외국인 여행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 인상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도네시아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격화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지 보존을 명목으로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9년 코모도왕도마뱀 멸종을 막겠다며 코모도 국립공원에 1천 달러(113만원)짜리 연간 회원권을 도입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관광객들이 급감, 백지화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인근 보로부두르 사원은 8세기 전반 중부 자바에서 번영한 샤일렌드라 불교왕조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6만㎥의 석조물이 가로 · 세로 각각 123m 부지에 34.5m 높이로 솟아있다. 특히 보로부두르 사원은 미얀마 바간,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성지로 꼽힌다.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2012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불교사원'으로 등재됐다.

日 정토종, 사찰 방문하고 포인트 받고

개창 850년 맞아 포인트 앱 출시
포인트로 다양한 상품 교환 가능


일본 정토종 사찰. 사진출처=소라뉴스24

2024년 개창 850년을 맞는 정토종이 사찰을 방문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다.

일본과 아시아 소식을 전하는 소라뉴스24는 6월 8일 정토종이 최신 개발한 포인트 앱을 소개했다.

이번 앱은 개창 85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가파르게 줄고 있는 사찰 방문객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정토종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사찰 방문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50% 감소했다.

앱에 등록된 사찰을 방문하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된다. 정문을 통과하면 GPS 감지를 통해 포인트가 적립되며 본당 근처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기 위해 사원 경내에 입장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특히 외딴곳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면 이보다 더 많은 포인트가 쌓인다. 포인트는 '마이리'로 지칭된다. 10마이리에 센베이 쌀과자를, 50마이리에는 수제 생강차로 교환 가능하다.

정토종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전역에서 7000개 이상의 사찰들이 앱 사용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성지순례를 게임처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정토종은 "일상생활의 일부로 사찰을 방문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스님들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시대에 걸맞는 앱이다" "일본 정부보다 사찰이 기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등 다양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당나라 불상서 유리…당대 기술 유추 기대

롱먼 석굴서 발견 비로자나불
금 · 은 등 발견…"보기 드문 일"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룽먼 석굴에서 금과 은, 색유리 등이 사용된 불상이 발견됐다. 불상은 당나라(618~907) 때 조성된 것으로 당시 금도금 기술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신화통신은 6월 8일 "고고학자들이 당나라 시기 만들어진 거대한 허난성 비로자나불 두상에서 금과 은, 유리 요소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견은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문화재 보강 및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도중 발견된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비로자나불 표면에서 녹색과 빨간색, 검은색 등 기타 유색 안료 잔해도 발견했다. 당시 채색이 돼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발한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또 비로나자불 오른 편에 있는 보살상 안구에서 색유리도 발견됐다. 색유리의 두께는 약 0.5cm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롱멘 그로토스 연구소 쉬지아젠 회장은 "유리를 닦아 내니 짙은 녹색을 띠었는데, 이는 당나라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라면서 "이번 발견은 조각상 장식의 특성 및 당시 재료들을 연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중국 허난성에 의치한 룽먼 석굴 비로자나불. 사진출처=신화통신

호주 사찰, '종교 평화' 상징 도서관 탈바꿈

11월 준공…종교 서적 1500권
"종교 · 과학 중심 될 것" 기대


호주 한 사찰에서 '탈종교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호주 빅토리아 주 벤디고 시 근처에 위치한 한 사찰 'the great stupa of universal compassion'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각 종교 간의 간극을 초월하는 각종 자료와 유물들의 보고(寶庫)로 거듭날 예정이다.

ABC 뉴스 등 외신은 6월 6일 "주 정부로부터 31만 1000달러(한화 약 4억 원)를 지원받아 '탈종교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 학자와 학생들을 매료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7년 전 책 몇 상자의 기부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책들을 시스템에 목록화하면 됐기 때문에 혼자 일을 시작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11월, 도서관 준공을 앞두고 1500권 이상의 책들이 수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 중 약 250권은 이미 해당 대탑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도 게재됐다. 각계 종교지도자들은 "도서관이 영적 깨달음 및 종교의 과학적 분석 등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신앙과 과학이라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 책을 모으고 있다"며 "불교 서적이 가장 많지만 이웃종교들의 책도 꽤 많이 수집됐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종교 간 이해, 불교와 과학의 교차점 등을 연구하고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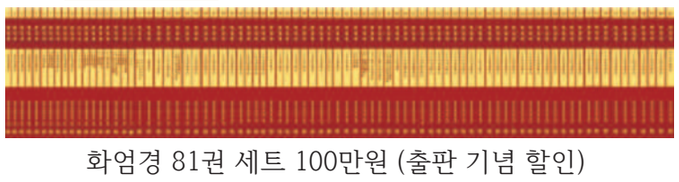
주정부와 시의회도 이번 프로젝트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벤디고 시의원인 마리 에드워드(Maree Edwards)는 "개관될 이 도서관은 종교적 가르침을 좇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도시에는 다문화 · 다종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게 훌륭한 문화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은 출신 · 종교 등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종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뻐했다. 박정현 객원 기자

농선 대원 선사의 전등록 30권, 화엄경 81권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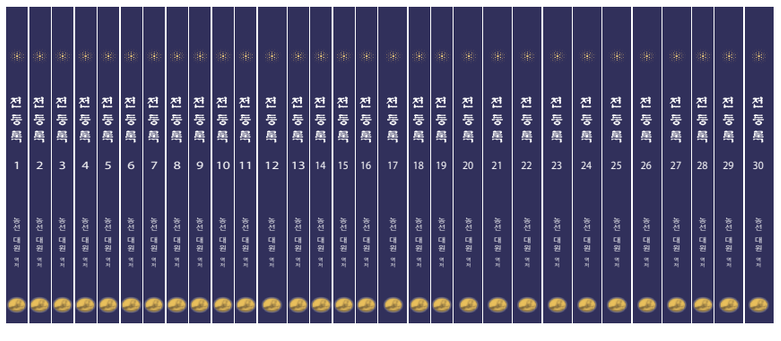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불교 경전의 정수인
대방광불화엄경 완간!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출간 완료!


화엄경 81권 세트 100만원 (출판 기념 할인)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에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밝혀 보이다

농선 대원 선사는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 81권'을 완간하고, 선문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30권' 1,463칙에 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최초로 전 공안을 맑은 물 밑바닥 보듯이 회통쳐 출간하였습니다. 그런 혜안(慧眼)으로 이번에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인 '전등록 30권'을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밝혀 보였습니다. 이 바로보임에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듯이 계합하여 참나를 깨달아 몸이 내가 아닌 '마음이 내가 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전등록 30권 ㈜도서출판 문젠
세트 45만원 (T.010-8670-1445)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8~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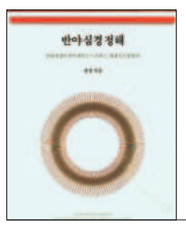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도표로읽는천수경입문	목경찬	민족사
2	불교성전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3	법성게(마음하나에펼쳐진우주)	의상조사/정화	법공양	8	752게송법구경(지혜의말씀담마파다)	법구 찬/유지난 등 역	운주사
4	나를찾아가는여행(미국도서대상동아시아종교부문입상작)	최석원	사유수	9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5	붓다중도로살다(깨달음은지금여기삶이되어야한다)	도법 지음	불광출판사	10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람림=보리도차제)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책세상

정확하고 바르게 집대성한 '반야심경' 해설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반야심경 정해
관정 스님 지음
알아차림 펴냄
65,000원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관정 스님 지음
알아차림 펴냄
16,000원

〈반야심경(般若心經)〉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다. '팔만대장경의 정수를 담은 핵심 경전' 이며, 260자 짧은 경문 안에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대승경전으로 불경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다.

산스크리트어본 및 8종의 한역본 연구
비교분석 및 추가 등 종합집대성 결과
〈아함경〉 등 경전 통해 누락부분 참고
"반야심경 수행 방법을 말해주는 경전"

〈반야심경〉을 종합하고 분석한 책이 출판됐다. 〈반야심경 정해〉와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는 저자 관정 스님이 15년 동안 연구하고 종합한 결과물이다.

관정 스님은 "〈반야심경〉은 총 8종의 한역본(漢譯本)이 있고,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티베트어 몽골어 만주어 영어 불어 독일어 등 수많은 언어로 수백 종의 번역본이 나와 있다"며 "하지만 그 뜻을 알려면 너무나 어렵다.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번역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말로 번역되어 있거나 완전히 엉뚱한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연구 이유를 밝혔다.



저자 관정 스님이 15년 동안 연구 종합한 결과물.

관정 스님은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을 연구했고 한문 〈반야심경〉에서 잘못 번역된 부분을 찾아 바로잡았다. 아울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쉬운 말로 번역했다. 연구 과정에서 스님은 〈아함경〉 〈유마경〉 〈중론〉 〈구사론〉 〈유식론〉 등 불교 경전을 참고해 〈반야심경〉에 나오는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반야심경은 원래 신비한 주문을 말해주기 위한 경이 아니라 반야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 방법을 말해주기 위한 경이고, 반야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온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이라 강조했다. 또 "현장법사는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경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경의 60프로의 내용을 빼버리고 번역했고, 뺀 부분에 반야심경의 핵심내용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반야심경 정해〉는 800여 쪽에 달하는 종합 안내서이다. 총 17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내용은 산스크리트어와 8종의 한역본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했다. 〈반야심경〉에 대한 전체 구조를 설명하고 단락을 구분해 상세히 안내했다. 7장에서는 중국 선불교가 반야심경을 왜곡한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에는 티벳트본 〈반야심경〉 번역과 유식불교, 8종의 〈반야심경〉한역본의 원문과 우리말 번역을 추가했다.

〈반야심경, 무슨 말을 하고 있나〉는 〈반야심경 정해〉의 핵심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책이다.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됐으며 위빠사나 지혜를 계발하는 방법인 아나빠나사띠 수행 방법을 추가했다.

관정(觀頂) 스님은 1959년 경남 함안서 태어났으며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부산대 불교학생회에 가입 후 선수행과 불전연구를 이어왔다. 1985년 전국 대학생 학술연구발표대회(문교부후원, 동아대학교주관)에서 〈금강경 국역 본에 나타난 문의미(文意味) 변이와 그 원인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운대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교직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선수행을 이어왔으며 위빠사나금정선원을 운영했다. 2019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통도사 반야암 지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현재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암자에서 집필 중이다. 유튜브 TV 관정스님 반야심경 강의를 통해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저서로는 〈마하시 사야도의 위빠사나 명상법〉 〈대승기신론 속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걷기명상〉 등 다수를 저술했다.

"놀라움의 크기만큼 행복감도 커져"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
보경 지음/스노우캣 그림
불광 펴냄1만 8천원

몇 해 전 어느 겨울날, 길고양이 한 마리(냥이)가 산중암자에 사는 스님 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날 이후 낯선 고양이와 어색한 동거를 시작한 스님은 사람과 닮은 듯 다른 고양이의 생활을 지켜보며 존재와 삶을 생각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글로 적어 왔다. 그 첫 기록이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됐고, '바라보기' 와 '기다리기' 가 중심 이야기였다. 이어서 〈고양이를 읽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두 번째 책에는 고양이와 무더운 여름을 함께 나며 터득한 '느리게' 그리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담았다. 이번에 출간된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는 앞선 두 책을 잇는 보경 스님의 고양이 에세이 시리즈 마지막 편이자, 매 순간을 기쁘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법을 성찰한 글이다.

보경 스님과 냥이가 함께 지낸 지 햇수로 6년째에 접어들었다. 스님이 십수 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산중암자로 돌아온 2017년 겨울 저녁,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굶주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꼬리 없는 누런 고양이에게 우유와 토스트를 건넨 것이 이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산중암자에 불쑥 찾아든 야지의 고양이는 이제 스님의 거처인 송광사 탑전을 자신의 왕국으로 삼아 그 주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안온하게 지내고 있다. 도 한번 닦아보겠다는 출가도 아니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버린 그 태도가 너무나 태연하여 스님은 꼼짝없이 고양이를 보살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스님과 냥이가 알콩달콩 지내는 사이, 계절이 오가듯 많은 인연이 오고 갔다. 엄마 이쁜이와 주니어 이쁜이, 주니어 이쁜이가 낳은 여러 마리의 새끼 고양이들… 여러 차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목격하는 와중에 스님 마음속에는 잊지 못할 추억과 이야깃거리가 수북이 쌓여 갔다. 단풍이 무르익듯 깊어진 스님과 고양이들의 나날을 담은 이 책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어찌할 수 없는 인연의 오고 감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의 본

보경 스님 고양이 에세이 마지막 3편
'냥이'와 함께한 봄·가을 이야기 실어
어쩔수 없는 것들과 사이좋게 사는법

질에 대한 성찰이다. 인적 드문 산중암자에서 '냥이선사' 로부터 터득한 농밀한 삶의 지혜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농사가 있다.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아야 한다. 보경 스님은 50대에 접어들어 책 읽고 글 쓰며 불교를 인문학적으로 해설하는 일로 인생의 후반부 계획을 세웠다. '반짝이는 번개 속에서 글을 읽더라도 읽는 값을 치러야 한다' 는 말을 모토로 삼아 삶과 수행에서 얻은 통찰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려 애쓰고 있다. 지식이든 지혜든, 자신이 아는 것을 남들과 나누지 않고 홀로 삭이는 것만큼 비참한 일도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에 담긴 스님의 메시지는 '경이롭게 바라보기' 다. 평생 혼자 사는 데 익숙한 스님에게 찾아온 낯설고 신비로운 존재, 사람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양이의 하루하루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행복의 비결이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놀라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별 볼 일 없다는 듯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시시하다. 그런 삶에는 즐거움이 적다. 작은 것 하나도 경이롭게 바라보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것들 안에 있는 특별함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면 매 순간이 놀랍고 흥미로워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 선사와 현자 들이 하나같이 행복을 좇지 말라고 가르친 까닭이다. 행복은 외적 발견이 아닌 내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고양이들은 어디서든 잘 산다. 고양이들이 낯선 곳이라도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들의 생각이 바람과 같아서 불현듯 옮겨가고 지난 과거는 머릿속에 남기지 않아서다. 그리고 매사 '알맞게' '지나치지 않게' 살기 때문이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는 선종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는 존재가 바로 고양이들이다. 마땅히 사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은 삶을 옥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라는 헛된 기대와 환상도 마찬가지다. 집착과 욕망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범이다. 지치거나 치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세상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욕망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좋은 삶이란 생각을 좇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일 없이 지금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사는 것, 곧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세야말로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힘이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 미술’이던 전통 채색화 재조명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9월25일까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등 작가 60여 명 참가
민화 · 종교화 · 궁중회화 · 창작민화 등 80여 점 전시
한국미술사에서 소외됐던 가치 · 역할 재조명 기회로
교훈 · 감상 · 벽사 · 길상 등 4주제 6개 분야 구성해
19~20세기작서 20세기 후반기 창작민화까지 총망라


성파, 수기맹호도, 2012, 패널에 옻칠, 162×570cm, 작가 소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의 전통 채색화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은 9월 25일까지 과천에서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를 개최한다.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전통 채색화의 가치와 근대 이전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민화와 궁중회화, 종교화, 기록화 등을 아우르는 한국의 채색화는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벽사), 복을 불러들이며(길상), 교훈을 전하고(문자도), 중요한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자(기록화)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전통회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선시대 이후 문인들의 수묵 감상화 위주의 미술사 서술이 주류를 이루면서 장식과 기복의 ‘역할’을 지닌 회화를 순수예술로 보지 않았던 근대 이후 예술개념의 형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 미술사에서 소외됐다고 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최초로 채색화를 조명하는 이번 ‘생의 찬미’는 그동안 한국미술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한국 채색화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재조명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채색화의 전통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각 역할별로 19~20세기 초에 제작된 민화와 궁중장식화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후 제작된 창작민화와 공예, 디자인, 서예, 회화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 80여 점으로 구성됐다.

전시에는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강요배, 박대성, 박생광, 신상호, 안상수, 오윤, 이종상, 한애규, 황창배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6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송규태, 오순경, 문선영, 이영실 등 현대 창작민화 작가 10여 명도 참여한다.

전시는 전통회화의 역할을 ‘벽사’와 ‘길상’, ‘교훈’과 ‘감상’ 네 가지 주제와 6개 분야로 구성했다.

△첫 번째 ‘마중’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벽사 이미지인 처용을 주제로 한 스톤 존스턴 감독의 영상 ‘승화’로 시작한다.

△두 번째 ‘문 앞에서: 벽사’에서도 길상의 첫 역할인 벽사의 의미를 담은 도상들로 시작한다. 신상호 작가의 ‘Totem(토템상)’을 시작으로 ‘욕불구룡도’와 ‘오방신도’, ‘호작도’, 성파 대종사의 ‘수기맹호도’와 같은 전통적인 도상들이 한애규 ‘기둥들’, 오윤의 ‘칼노래’ 등과 함께 선보인다.

성파 대종사의 ‘수기맹호도(2012, 패널에 옻칠, 162×570cm, 작가 소장)’는 민화 ‘대호도’를 재해석한 그림으로, 자다가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는 위풍당당한 호랑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옻칠 작품이다. 성파 대종사는 “‘대호도’는 일제강점기에 식민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분연히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며 “이 시대의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대형 옻칠 화면으로 ‘수기맹호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성파 대종사는 통도사 서운암에 주석하며 ‘16만 도자대장경’을 조성하고, 옻칠 불화, 민화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정원에서: 십장생과 화조화’에서는 ‘십장생도’ 병풍과 함께 김혜경의 영상 작품 ‘길상’, 전혁림의 ‘백낙병’, 김종학의 ‘현대모란도’, 손유여의 ‘모란숲’, 홍지윤의 ‘접시꽃 들판에 서서’ 등 전통적인 길상화인 십장생도와 모란도 등 19세기 말 작품부터 길상 도상의 의미와 표현의 확장을 모색해 온 최근 회화와 영상을 선보인다.

△네 번째, ‘오방색’에서는 높은 층고의 열린 공간인 중앙홀에 2개의 작품을 전시한다. 모두 오방색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김신일의 설치작품 ‘오색사이’와 이정교의 거대한 네 마리 호랑이 작품 ‘사 · 방 · 호’를 선보인다.

△다섯 번째 ‘서가에서: 문자도와 책가도, 기록화’에서는 정원을 지나들어간 어느 서가에서 만난 책과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 공간에서는 8명의 작가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문자도와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매화 책거리도(8폭 병풍)’를 포함한 다양한 책가도,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격변의 시기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기록화들을 선보인다.

△마지막 ‘담 너머, 저 산: 산수화’에서는 서가를 나와 다시 정원에 들어서며 보이는, 담 너머 펼쳐진 산수화로 구성됐다. 다른 채색화 분야와는 다르게 감상화로 분류되어 중앙화단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산수화의 다양한 변주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최초로 온라인상에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트윈 전시 공간을 구축하여 실제 전시장 관람이 어려운 전국의 관람객들이 집에서 PC나 휴대폰으로도 전시를 실제처럼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온라인 전시 관람을 넘어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특화된 디지털 미술관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 채색화의 국내 현대미술계에서의 위치와 근대 이전의 역할을 조명해보고자 마련한 특별전”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채색화가 다시 도약하고 한국회화사에서 균형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시의 의미와 취지를 밝혔다.

김경호 사경전 ‘묘법연화경 권제1’

한국전통문화전당 6월 14~20일
4년간 사성한 ‘묘법연화경’ 전시
2018년 입제한 사경 7년 결사 중


감지금니(법화경약찬게)-34.0, 186.5cm (26.1, 178.5cm) 경문(26.1, 178.5cm) 위태천(23.9, 15)

사경장 김경호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사경전 ‘묘법연화경 권제1’을 개최한다.

김경호 사경장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묘법연화경’ 역시 0.1mm 붓으로 1000시간 이상 초집중하여 조성한 작품이다.

김경호 사경가는 2018년 6월 6일, 8인의 도반과 ‘묘법연화경’ 사경 3년 결사를 입제했다. 결사를 시작한 김경호 사경장은 처음 계획보다 더욱 수승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상의 법사리로 사성하기 위해 해제일을 늦추기로 했다.

사성 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매년 1권씩의 성료를 목표로 정진한다는 계획이다.

결사는 7년 결사가 되어 2024년 12월 31일에 해제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김경호는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됨에 따라 매년 공개행사를 개최하고 가급적이면 기획행사도 가질 계획을 세웠다. 이들 행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사성한 ‘묘법연화경’(권제1, 권제3, 권제4, 권제5) 4권을 우선 공개행사(전시) 시 1권, 기획행사(전시) 시 1권씩 대중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개행사와 기획행사는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전시와 함께 공개되는 작품 ‘묘법연화경’ 1권씩을 전시해 도록 겸 교본 시리즈로 발행한다.

김경호 사경가는 한 점 한 획을 부처님 상호로 생각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수행으로 여기며, 가장 이상적이고 원만한 법신 부처님 상호로 모시고자 정진했다.

〈묘법연화경〉 권제1 한 작품만 해도 약 1만의 부처님을 조성한 셈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사경장 공개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백지묵서 〈묘법연화경〉 권제1을 중심으로 하며, 이번 전시부터 13명의 전수교육생들의 작품 26점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전통 금니사경의 제작과정 동영상을 상영하고 금니은니 장엄경 사경의 재료 및 도구도 전시한다. 문의 (063)281-1563.

박재완 기자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4주년 기념
제17회 추모 다례재 및 경로위안행사

귀의 삼보하옵고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에서는 불향인 전남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 844주년을 맞아 제17회 다례재 및 경로위안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순문화원에서 봉행되는 다례재는 진각국사 혜심의 큰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화순군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6월 24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화순문화원 들국화실
■ **주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 **후원** : 화순군 Hwasun-gun 화순군의회 Hwasun-gun Council
■ **협찬** : 화순읍 유천리 벽오동 보리밥. 화순군 동면 예작 식당, 화순 초등학교 제37회 동문회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0 H·P 010-2971-4646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범석수불 대율사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 관허수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및 교수사)
존증아사리 심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원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존증아사리 혜성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주목! 학술서 김종진의 '근대 불교잡지의 문화사'

불교잡지, 근대 한국불교를 이끌다

근대 최초 불교잡지 '원종'부터
봉선사 강우회지 '홍법우'까지
불교잡지 시대별 조사 · 분석
학술 · 문예 · 사상지로서 역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기 발행됐던 불교잡지들. 사진 왼쪽부터 〈조선불교월보〉〈유심〉〈해동불보〉

근대 최초 불교잡지는 1910년 원종종무원이 발행한 〈원종〉이다. 하지만 〈원종〉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불교잡지는 1912년 발간된 〈조선불교월보〉다. 이는 원종종무원과 조선불교선교양종주지회의 기관지로서 역할을 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국 불교잡지 발행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술지가 없던 시대에 불교잡지는 불교학, 불교사, 불교문학 관련 연구의 성과를 담은 학술지로서 유통됐고, 중앙불전 재학생, 졸업생, 강원의 학인, 선원의 젊은 수좌, 그리고 일본 유학생들이 불교적인 심성을 문학적으로 표출하는 문예지로서 확산됐다.

이처럼 근대 시기 발행되는 잡지는 당시 문화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텍스트이지만, 유독 한국불교사 연구에서는 관심이 적었다. 있더라도 만해 한용운 스님, 홍사용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이 수록된 불교잡지에 한해 연구가 진행됐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발간한 학술서 〈근대 불교잡지의 문화사-불교청년의 성장〉은 잡지 연구를 통한 한국 근대불교 문화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저자 김종진 교수는 근대 불교잡지 한 권 한 권을 유기체적 텍스트로 파악하고 전개사, 구현된 이념, 학술 성과, 문예 성과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문화사적 의의를 조명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발행한 대표적인 불교잡지 17종 300호 이상을 대상으로 구체적 분석을 진행했으며 개별 잡지마다 전개사, 학술사, 문예사로 항목을 구분 · 기술했다. 불교잡지에 수록된 논설, 학술논문, 문학작품 목록을 표로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운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저자는 근대불교잡지가 이뤄낸 성과로 한국불교사와 근대불교학의 정립, 불교문학의 창작을 꼽는다. 〈조선불교월보〉 초기부터 비문의 현상모집 광고를 앞면에 수록한 것은 이 땅의 불교사를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사산비명〉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소재 불교사 자료 및 근대 고승 행적을 복원하는 노력들도 불교잡지를 통해 이뤄졌다.

근대 불교잡지는 불교학이 근대학문으로 정립되는 과정에서 공론의 장이었다. 해외 학자 학설을 소개하고 한국 불교학자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공적 매체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잡지들은 한글을 포교 매개로 사용하며 한글문화 다변화를 기여했으며 소설, 희곡 등이 연재되며 불교문학 대중화도 이끌었다. 사실상 근대 불교잡지는 그 시절 불자와 대중들에게 '복합문화텍스트' 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잡지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종진 교수는 "불교 청년의 목소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 불교잡지는 불교 청년들의 성장과 독립을 추동한 매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학이나 역사학, 문학 영역에서 익히 인정받는 석학과 문사들만이 근대문화 창조의 주역은 아니다"면서 "급변하는 시기 고군분투했으나 주류로 인정받지 못한, 무명에 가까운 불교청년들의 문화 창조의 성과가 이 연구를 통해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교생이 구현한 감은사지 석탑 신비로움

문화재청,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시상식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자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에서 감은사지 석탑의 신비로움을 디지털로 구현한 고교생들이 학생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6월 3일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진대회에는 113개 작품이 참여했으며 이중 3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문화재청이 축적 · 개방하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원천기록 데이터를 국민과 민간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소재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열렸다. 디지털 기획 · 콘텐츠, 문화유산 메타버스 등 2개 분야에 걸쳐 학생부와 일반부 부문으로 나눠 공모했다.

최우수상인 문화재청상은 학생부에 '신비한 감은사지삼층석탑(대구 이룸고 박현난, 이효준, 이준석)' 과 '메타버스 플랫폼 속 문화유산 활용 박물관(서울 우신중 황찬우)' 이 수상했으며, 일반부에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촉각입체북(넥스페이스 오윤석, 윤상혁, 김정수)' 과 '독립운동 비밀결사 백산상회(전통문화대 이정민, 정재희, 이환욱)' 가 선정됐다.

우수상인 공주대학교총장상은 학생부에 '삼형제 백제 석수 친구들(천안동중 송지호, 천안삼거리초 송지민, 송지율)' , '세계기록유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일신여상 백서현)가, 공주시장상은 일반부에 '세종대왕의 방 VR구현과 영상 다매체 활용방안(덕성여대 성지연)' , '서운관, 조선 기상 및 천문 관측 메타버스(전통문화대 김보람, 변혜빈, 강혜리)' 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9월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문화재산업전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전시회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디지털 일상화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수요가 급변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고대~근현대 불교사 한눈에 망라

한국학중앙硏, 영문 학술지 6월호서 '불교' 특집

남동신 등 전문 불교사학자
불교 관련 영문 논문 게재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불교사를 망라한 영문학술지가 발간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은 한국학 분야 대표 영문학술지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6월호를 발간했다.〈사진〉 이번 호에는 고대부터 고려 · 조선 · 근현대까지 불교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특집' 이 게재됐다.

'연구특집' 에는 불교사학 전문 학자 4명이 한국불교 변화상과 역사적 의미를 시대별로 살폈다.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Wonhyo's View of Human Beings and his Redemption of Mankind(원효의 인간관과 중생제도행)' 을 통해 한국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사상가이자 포교사였던 '원효' 의 인간관과 그의 실천을 살폈다. 원효의 평등한 인간관과 이타적 보살행이 통일신라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되었음을 살펴 그의 인간관과 중생제도행이 당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였음을 밝혔다.

김수연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는 'Dhāraṇī, Maṇḍala, and Talisman: The Rediscovery of Buddhist Faith in the Goryeo Dynasty(다라니, 만다라, 부적: 고려 불교 신앙의 재발견)' 를 게재했다. 그는 논문에서 다라니, 만다라, 부적 자료가 그간 한국 불교사의 전통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 글을 알지 못하는 대중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중요한 자료며, 그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 때 비로소 고려 불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질 수 있음을 역설했다.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The Spectrum of Studies on the History of Joseon Buddhism and a New Understanding of the Korean Buddhist Tradition(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스펙트럼과 전통 재인식)' 을 통해 그간 학계에서는 조선시대의 불교가 억압 받고 쇠퇴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지만, 2000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불교사 전통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대두됐고, 그 연구 저변도 넓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The Discourse of Reform and the Perception of Tradition in Modern Korean Buddhism(근대 한국불교의 개혁담론과 전통 인식)' 을 발표한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는 일제강점기에 활발히 제기됐던 불교계의 개혁담론을 소개했다. 당시의 이러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했고, 한국 불교의 전통 인식과 정체성 확립에는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며 당시 불교계에서 일구고 노력한 산물이 오늘날 한국 불교 전통으로 이어졌음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리뷰특집' 에는 한국의 주요 고고학 유적을 주제로 전문 학자 4명의 리뷰가 게재됐다.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유적과 관련 유물에 대한 다양한 리뷰와 관련 연구 동향을 제시했다.

한편, 국내외 한국학 연구성과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창간된 〈The Review of Korean Studies〉는 연 2회(6월, 12월) 매호 10여 편의 다양한 학술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원효, 어떻게 한국불교 새벽 열었나

한국불교연구원 7월 13일까지 온라인 강좌

한국불교의 새벽을 열렸던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온라인 강좌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주형, 원장 안성두)은 7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 '원효, 어떻게 한국불교의 새벽을 열었는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두 개의 주제를 다루며, 1시간 강연 후 15~20분 정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6월 15일에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원효의 대승기신론 선양과 동아시아 불교계' , '화엄사상사 속의 원효' 를 강의하며 6월 22일에는 김태수 대진대 교수가 '동아시아에서 유식-중관 논쟁과 원효의 이해' , '원효의 화쟁사상' 를 다룬다.

6월 29일 이상민 동국대 교수는 '지론교학에 나타난 북조불교의 특징' 과 '원효와 북조불교' 를, 7월 6일 이수미 덕성여대 교수는 '〈대승기신론〉을 통해 본 원효와 법장사상의 차별성' , '원효와 법장의 알라야식 이해, 〈대승기신론내의 략탐기〉에 나타난 원효와 법장사상' 을 각각 강의한다. 7월 13일에는 김성철 금강대 교수의 '진제의 불성론과 원효의 불성사상' ,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진제의 아말라식 개념과 원효의 이해' 가 진행된다.


원효 스님 진영.

한국불교연구원은 "한국불교사에 길이 남은 최고의 사상가이며 민중불교를 이끌었던 원효 스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에서 왜 원효스님이 한국불교 새벽을 여는 역할을 했는지 저술을 통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02)762-5624

신성민 기자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침술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9

▶ **70회 예고**
니그로다의 추천으로 율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아쇼까라마 책임자가 된다. 목갈리뿟다띠사는 아쇼까왕의 요청으로 설법한다. 아쇼까왕은 감동하여 목갈리뿟다띳사가 원하는 대로 전국에 8만 4천 개의 사원을 짓도록 명한다.



니그로다, 아쇼까왕을 만나다

숲 저쪽 꾸꾸따라마 터에는 왕궁처럼 큰 사원이 조성되고 있었다. 아쇼까의 이름을 딴 사원이었다. 수만 명의 수행자들이 상주하며 수행할 수 있는 아쇼까라마였다. 수행자들은 아쇼까라마가 완공되기만을 기다렸다. 아쇼까라마에 들어가게 된다면 밤새 반얀나무나 삡빨라나무 아래서 웅크리고 자지 않아도 되며, 아침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탁발할 필요가 없을 터였다. 아쇼까왕의 특명으로 짓고 있으므로 다른 전통사원들과 달리 수행자들의 의식주는 물론 약(藥)까지 불편함 없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쇼까왕은 그날 아침에 우연히 노란색 옷을 입은 브라흐마교 수행자들이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사자 문양이 새겨진 발코니에 서서 우연히 보게 된 공양풍경이었다. 수행자들은 게걸스럽게 공양을 했다. 천박할 뿐 절제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진리를 추구하는 고행의 수행자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쇼까왕은 발코니에 선 채 중얼거렸다.

'이런 천박한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느니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

아쇼까왕은 라다굽따 수상에게 지시했다.

"공양 받을 만한 수행자는 없는 것이오? 가서 공양을 받을 만한 자들을 데려오시오. 나는 앞으로 그들을 우대할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수행자가 저런 것은 아닙니다. 저 자들 말고 공양 받을 만한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아쇼까왕은 고행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왕궁정원에 크고 작은 식탁을 높고 낮은 곳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흰색의 일산을 편 식탁도 마련하도록 명했다. 그 사이에 라다굽따는 수행자들이 공양하는 장소로 가서 빤다랑가 종파, 아지비까 종파, 자이나교 종파 등의 고행자 중에서 장로들을 데려왔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이들이야말로 공양 받을 만한 고행자 장로들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 그대들에게 적당한 곳에 앉으시오."

장로 고행자들은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찾아가 앉았다. 그런데 서로가 일산이 펴진 자리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행동했다. 아쇼까왕은 또 다시 실망했다.

'겸손함 뿐만 아니라 머리에 든 것이 전혀 없군.'

아쇼까왕은 장로 고행자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한 뒤 설법을 듣지 않고 그대로 보내버렸다. 장로 고행자답게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거나 언행이 우아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장로 고행자들에게 몹시 실망한 아쇼까왕은 별다른 생각 없이 발코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때마침 어린 니그로다 사문이 공양 전에 왕궁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왕궁으로 나 있는 길을 걸어보기는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공양장소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공양이 끝나면 즉시 강가강 동굴로 가서 스승 마하바루나를 시봉했던 것이다. 마하바루나는 늙고 병들어 짠달라 천민촌으로 가서 설법하지 못했다. 동굴 속 대나무 침상에 눕거나 앉아서 주로 불경을 암송하면서 소일했다.

왕궁으로 가는 길가에는 붉고 노란 양귀비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니그로다는 양귀비꽃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왕궁의 정궁 발코니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정궁 발코니에 앉아 있던 아쇼까왕이 어린 사문 니그로다를 보았다. 니그로다는 아쇼까왕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린 니그로다의 용모는 우아했다. 삭발한 머리는 아침햇살에 반짝거렸고, 주황색 가사는 더 없이 정갈했다. 니그로다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중얼거렸다.

'백성들 대부분은 뿔뿔이 흩어지는 사슴 떼처럼 마음이 산란한데, 저 어린 사문은 마음을 한 데 모아 걷고 있구나. 마차의 멍에 길이만큼 시선을 앞쪽에 고정해 두고 걷는 걸음걸이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구나.'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을 불러 말했다.

"대장, 저 어린 사문을 보니 애정이 일고 존경하는 마음이 드오. 모셔오도록 하시오."

"예, 대왕님."

친위대장은 급히 정궁을 나와 왕궁을 둘러보고 있는 니그로다에게 다가가 말했다.

"사문이여, 대왕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를 말이오? 이유가 무엇이오?"

"대왕님을 알현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겠소."

니그로다는 망설이지 않고 친위대장을 따라갔다. 아쇼까왕이 발코니 의자에 앉아서 니그로다를 맞이했다.

"나는 불교신자는 아니오. 그러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제도하는 불교에 관심이 많소. 나는 꾸꾸따라마 터에 아쇼까라마를 짓고 있소."

"대왕님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자, 어느 자리로 가서 공양하겠소? 어느 자리라도 내가 허락하겠소."

니그로다는 왕궁정원을 둘러보았다. 공양할 자리가 마련된 정원에는 수행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니그로다는 마음 가는 대로 흰 일산이 펴져 있는 식탁으로 갔다. 그러자 아쇼까왕이 생각했다.

'어린 사문이 오늘 이 순간만큼은 왕궁정원의 주인이군.'

잠시 후 니그로다는 궁녀들이 가져온 공양을 기꺼이 받았다. 공양물은 짜파티 한 장과 짜이 한 잔, 그리고 바나나 한 개와 포도 한 송이가 전부였다. 니그로다는 짜파티 한 장과 짜이만 마셨다. 니그로다가 공양을 마치자마자 아쇼까왕이 말했다.

"사문이 기억하는 담마를 나에게 설해 줄 수 있소?"

"대왕님이시여, 소승은 스승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에게 들은 존귀한 붓다의 담마를 기억합니다."



"사문이여,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시오."

니그로다는 〈담마빠다(법구경)〉의 한 구절을 외웠다.

방일하지 않음이 불사의 길이고
방일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
방일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으나
방일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사문은 내가 미처 모르던 것을 일깨워 주었소. 나태한 자도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았소."

"대왕님이시여, 이 담마가 전능한 붓다가 남긴 모든 설법의 뿌리이옵니다."

"내게 설법의 근본을 알려주다니 경의를 표하고 싶소. 나는 설법의 근본을 들은 대가로 왕궁정원에서 불교 장로 여덟 분에게 항상 공양 올리겠소."

수행자들이 공양하는 일반장소가 아닌 넓은 왕궁정원에서 니그로다가 추천하는 여덟 명의 장로에게 공양을 올리겠다는 말이었다. 아쇼까왕이 물었다.

"사문은 어느 사원에서 왔소?"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곳은 강가강 언덕의 동굴이옵니다."

"스승은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

"지금은 늙고 병들어 동굴에 주로 계시지만 평생 동안 짠달라 천민촌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천민촌이 아닌 큰 도시에서 설법했다면 많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오."

"대왕님이시여, 천민도 백성이옵니다. 저는 천민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을 만나 사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은 어디에서 설법했든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신 분입니다."

"사문이여,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아쇼까왕이 니그로다의 논리정연한 말에 탄복하여 이름을 물었다.

"소승의 이름은 니그로다입니다."

아쇼까왕이 깜짝 놀랐다.

"니그로다!"

"대왕님이시여, 왜 놀라십니까?"

"수시마 형님이 사문의 아버지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인연이란 강가강과 같은 것입니다. 온갖 사연이 한 몸으로 섞이기도 하고,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는 물방울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소승은 인연을 따라 살 뿐 지나간 일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과거를 생각하며 회한에 잠긴 일은 없습니다."

"오! 사문이여."

아쇼까왕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니그로다의 짧지만 아름다운 설법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신과 권력투쟁 중에 죽은 이복형 수시마가 떠올라 순식간에 심란해졌다. 괴로운 감정이 니그로다를 바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솟구쳐 올랐다. 아쇼까왕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내 앞에 수시마 형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소."

"소승은 과거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현재는 소승 니그로다만 여기 있을 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형수님은 어디에 있소?"

"짠달라 천민촌에 계십니다. 마하바루나 아라한님께 귀의한 뒤부터 마음 편히 살고 계십니다."

"브라흐민 왕족이 어찌 천민촌에서 산단 말이오? 나는 왕궁으로 형수님을 불러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사시게 할 것이오."

니그로다가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는 절대로 왕궁에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왕궁은 어머니에게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낙원은 짠달라 천민촌입니다. 지옥과 낙원은 눈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왕님께서는 어머니를 그대로 두셔야 할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가 어린 나이의 조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설법하는 사문임을 실감했다. 니그로다는 이제 조카가 아니라 세속을 버리고 출가한 사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아쇼까왕은 니그로다를 제관처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다.

"니그로다, 아쇼까라마를 책임지고 맡아주시오."

"대왕님, 소승은 짠달라 천민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스승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이 했던 일을 제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마우리아왕국의 백성입니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에게 더 이상 청하지 않았다. 명령할 생각도 없었다. 천민인 달리뜨들과 동고동락하겠다는 그의 사문다운 태도를 존중했다. 니그로다는 아쇼까왕이 아직도 자신을 조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왕이 아닌 삼촌으로서 무언가 특혜를 주고 싶어 한다고 느꼈다. 아쇼까왕이 아쉬워하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아쇼까라마를 맡아줄 수 있는 사문을 추천해 주시오."

"최고의 율사가 계십니다."

"그 율사는 어떤 사문이고 어디에 살고 있소?"

"강가강 언덕의 동굴에 살고 계십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사문님입니다."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를 기억해냈다. 어린 시절 불법과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쳐주었던 스승이 바로 목갈리뿟다띳사였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스승이 된 까닭은 아버지 빈두사라왕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왕은 어린 아쇼까에게 브라흐마교는 물론 다양한 종교관을 심어주기 위해 대신들에게 불교 사문을 추천하라고 명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어린 시절이 그리웠다. 뿐만 아니라 목갈리뿟다띳사에게 함부로 굴었던 행동이 미안하기도 하여 그를 불러들여 최상의 예우를 하고 싶었다. 그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리라고 작정했다.〈계속〉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⑪ 병 · 죽음 그리고 출가



▶한줄요약
근대기에 가까워질수록 병과 죽음이 더 중요한 출가 계기가 되었다. 병과 죽음 앞에서 그들은 처절한 참회를 하고 깊은 성찰을 했다.

참혹한 중생에서 찬란한 선승으로…

15. 약사여래와 지장보살

약사여래와 지장보살은 중생구제를 위해 사바세계에 머물고 계시는 부처님의 원력을 가장 앞선 자리에서 구현하고 있다. 약사여래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단명(短命)을 늘려주거나 비명횡사를 막아준다. 정신의 병도 치유해준다니 약사여래는 중생의 간단치 않은 삶에서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지장보살은 죽음 전후의 마음을 어루만져줌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없애준다. 현세에서 죽음 탓에 고통받는 중생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으로 간 중생마저도 제도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병과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출가한 선승이 많은 것은 이런 믿음의 그릇에 그들의 사연이 담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병과 타인의 죽음이 출가 동기로 이어진 경우도 많다. 사진은 월정사 단기 출가 수계식 모습.

16. 병

지증(智證, 824~882)은 아버지의 49재를 지내준 스님이 부처님을 따라가야 부모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하자 출가를 결심했지만 어머니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 가출하여 공부를 하던 중에 어머니 병환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갔다. 어머니의 병은 곧 나았지만 대신 자기가 학질에 걸렸다. 병이 나을 기미가 없어 점을 보니 '이름을 부처님께 올리면 나을 것이다' 는 점괘가 나왔다. 그제야 어머니도 출가를 허락했고 지증의 병도 말끔히 나아 출가하게 되었다. 지눌(知訥, 1158~1210)은 태어날 때부터 병이 많았다. 병을 낫게 해주시면 아들을 출가시키겠다고 아버지가 부처님께 약속을 하자 병은 완쾌되었고 마침내 출가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이 사례들에서는 병든 출가자를 두고 부처님과 출가자 그리고 부모 사이의 조건 내걸기가 나타난다. 신적 존재를 향한 고대적 축원을 닮았다.

고우(古愚, 1937~2021)는 폐병을 앓다가 요양차 수도암으로 들어갔다. 점차 좋아지는 것 같아 계속 머물게 되었으니 출가를 한 셈이 되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폐병은 다 나았다. '중도를 알고' '내가 없다는 걸 터득' 한 것이 특효약이 되었다고 했다. 병으로 고생하던 구산(九山, 1909~1983)이 한 거사를 만났다. 그는 "본래 청정한 자성 자리인데 어디에 병이 붙겠는가?"라고 했다. 이 말에 발심한 구산은 백일 천수기도를 했다. 기도가 끝나자 병이 나았고 정식으로 출가했다. 대효(大曉, 1945~)는 5살에 앓은 홍역으로 몸이 망가져 세속 생활을 하기 힘들 지경이 되었다. 대효는 3일간의 치열한 사유 끝에 출가하여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이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확신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몸이 제 노릇을 다할 수 있는 절로 들어간 것이다.

17. 단명

자식의 수명이 짧다는 말을 들은 부모라면 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게 어떤 일이라도 하려 할 것이다. 석봉(1890~1971)은 어려서부터 병약했다. 부모는 그가 단명할 것을 알았다. 부모는 일곱 살 석봉을 곡성 관음사로 데려가 기도를 올리게 했다. 21일째 되던 날 비몽사몽간 독사 한 마리를 토해냈다. 독사가 땅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깨어난 석봉은 그간 자신을 괴롭히던 병고에서 벗어났고 바로 관음사에서 출가했다.

법전(法傳, 1926~2014)은 말끝이 분명하지 않았다. 말끝이 흐린 아이 치고 오래 사는 경우가 없다고 어른들이 걱정했다. 주역가는 법전을 절에 보내지 않으면 스무 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부모는 청류암의 묵담(默潭)에게 아들을 맡겼다. 과연 법전은 형제 중 유일하게 장수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읜 선경(禪敬, 1904~1996)은 보살펴 줄 이 없이 병고에 시달렸다. 끊임없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결국 자살을 기도했다. 그 순간 "그대, 부처님 인연이 지중한데 어찌하여 스스로 명을 끊으려 하는가?"라는 허공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을 접고 출가했다. 출가의 결심만으로 육신과 마음의 병이 치유된 것이다.

18. 그리움

혜근(惠勤, 1320~1376)은 절친한 친구가 죽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어른들에게 물었지만 분명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슬픔을 어쩌지 못한 혜근은 묘적암 요연(了然) 문하로 출가했다. 종산(宗山, 1924~2020)은 대학시절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그리움으로 출가했다. 고산(杲山, 1933~2021)은 12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범어사 동산(東山, 1890~1965)에게 데리고 갔다. 고산은

병과 죽음의 문제로 출가 계기
단명 타고난 운명 출가로 변화
지인 죽음 목도 후 출가하기로
병과 죽음 앞에서 참회와 성찰

"스님 제자가 되면 우리 엄마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동산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서옹(西翁, 1912~2003)은 같은 해에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동시에 잃었다.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비관과 절망에 빠진 채로 부처님 관련 책을 읽다가 출가했다.

남편과 사별한 만성(萬性, 1897~1975)은 상원사 한암의 법문을 듣고 크게 위안을 얻었다. "절에서는 혼을 불러준다고도 하는데, 죽은 남편을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한암은 "스님이 되면 만날 수 있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하거든 대법왕께 귀의하라"고 했다. 그래서 37세에 출가했다.

19. 고아의 마지막 자리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고 출가한 선승도 적지 않다. 충담(忠湛, 869~940)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다.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장순(長純)이 데려가 상좌로 삼았다. 승형(承逈, 1187~1221)은 3살 때 고아가 되었다. 숙부에 의해 양육되다 7살 때 운문사 연실(淵實) 문하로 출가했다. 경헌(敬軒, 1542~1632)도 10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15살 때 옥주(玉珠)를 은사로 하여 출가했다. 만암(曼庵, 1876~1957)은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11살 때 어머니를 잃고 출가했다. 성문(性文, 1895~1974)은 11살 되던 해에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해인사 삼선암으로 출가했다. 13살 때였다. 수산(壽山, 1922~2012)은 어릴 때 큰형님과 사별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이어 죽었다. 수산이 14살 때였다. 3년 상을 마치자마자 어머니도 죽었다. 또 3년 상을 치렀다. 자식이 죽은 탓에 이어서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수산은 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자 했다. 백양사로 출가한 것이 19살 때였다.

우화(雨華, 1903~1976)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울고 있는 우화를 미워하고 무자비하게 때렸다. 14살 우화가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서 닿은 곳이 함양 영각사였다. 우화는 굶어죽지 않기 위해 그 절로 출가했다. 전강(田岡, 1898~1975)은 7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계모가 전실 소생 아이들을 방치했다. 전강의 젖먹이 동생은 걸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14살 때 아버지가 죽으니 계모는 자기 소생 젖먹이 아이를 전강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 밥을 빌어 이복동생을 먹여 살리려 했지만 결국 둘 다 죽을 것 같았다. 그때 어떤 스님이 나타났다. 절로 가서 도를 닦으라고 권했다. 그 말에 해인사로 출가했다.

20. 죽음 성찰

죽음의 경험은 생사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기도 했다. 휴정(休靜, 1520~1604)은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이듬해 아버지마저 잃었다. 당시 원이 한양으로 데려가서 보살펴주었지만 언제나 울적하여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죽음 문제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을 하다가 홀연 선가의 돈오법을 깨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출가했다. 제선(濟禪, 1912~?)은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소학교에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자기 앞에서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제선의 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 가출하여 유랑하던 차 평안도 묘향산에 이르러 한 스님을 만났다. "스님, 왜 제 아이가 그렇게 죽어버렸을까요? 그 까닭을 모르고선 답답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7일만 잠 안 자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궁금한 것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야." 이 말에서 제선의 출가수행이 시작되었다.

철우(鐵牛, 1895~1979)는 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13살에 어머니마저 잃었다. 어린 철우는 "도를 통하려면 참선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를 잃은 허전함 속에서 도를 통해 생사와 이별의 고통을 파헤쳐보고자 했다. 15살에 참선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일엽(一葉, 1896~1971)은 11살 되던 해 어린 남동생이 죽자 이어 어머니가 죽었다. 19살 때는 아버지까지 죽었다. 만공(滿空, 1871~1946)의 법문을 듣고는 평생 자신을 옭아매 왔던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될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출가했다.

경봉(鏡峰, 1892~1982)은 15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내적 개안의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을 안고 통도사 성해(聖海) 문하로 출가했다.

초의(草衣, 1786~1866)는 5살 때 강변에서 놀다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렸다. 물을 삼켜대며 가라앉았다가 솟아올랐다가 했다. 죽음의 새까만 어둠이 그를 삼키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를 구출해주었다. 죽음의 어둠 밖으로 나온 순간, 삶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 환희인지를 알았다. 그 까만 어둠과 밝은 빛의 교차는 그 뒤 내내 의식을 떠나지 않는 기묘한 무늬가 되었다. 그 무늬가 결국 15살의 초의로 하여금 산문으로 들어서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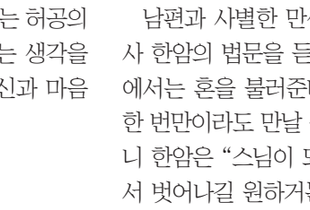
21. 평등

근대기에 가까워질수록 병과 죽음이 더 중요한 출가 계기가 되었다. 병과 죽음 앞에서 그들은 처절한 참회를 하고 깊은 성찰을 했다. 그리움에 사무쳐 망연자실하기도 했다. 불교는 그런 출가동기를 두고 등급을 매기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깨달음이 거기에 머물지도 않았다. 불교는 아프고 외롭고 절망하고 버려진 존재의 마지막을 그대로 담아주었다. 초라한 땅으로 내쳐질 때는 참혹한 중생이었지만 어느덧 일어날 때는 찬란한 선승이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고 떳떳하게 말할 곳이 거기다.

〈연세대 객원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염불전문 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⑪ 머리를 보시한 월광왕



▶ 한줄요약
월광왕을 시기한 비마사나는 그의 머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는 명을 내렸다. 탐욕에 사로잡힌 바라문 노도차는 그의 머리를 취하기 위해 월광왕을 찾았다. 월광왕은 불도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흔쾌히 보시했고, 열반을 이뤘다. 이 같은 본생담은 다양한 도상으로 남았다.

덧없는 육신 버리고 佛道 구하다

역사적으로 용맹한 무장들이 전쟁에서 결사항전 할 때 또는 한 치의 의심 없는 굳건한 믿음 앞에 '나의 목을 내놓겠다' 라는 말을 한다. 즉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최고의 맹세이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말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적이 있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보시를 행하셨을까?

북위(北魏)시기 양주(涼州)의 승려 혜각(慧覺) 등이 고창군(高昌郡, 오늘날 투르판)에서 한역한 〈현우경(賢愚經)〉 제6권의 30번째 이야기 '월광왕 두시품' (月光王 頭施品)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서 목을 내어 보시하신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석가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자 이를 차마 볼 수 없었던 사리불이 먼저 열반에 들어 모두 슬퍼함에 부처님께서 전생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시었다. 염부제에 월광(月光)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여러 작은 나라에 명을 내려 나라의 창고를 모두 열어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게 하였다.

그때 변방 작은 나라의 왕 비마사나(毘摩斯那)는 월광왕에 대한 칭송이 높고 크다는 말을 듣고 질투하여, 월광왕의 머리를 벨 수 있는 자에게 나라의 반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공주를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바라문 노도차(勞度差)가 월광왕의 머리를 베겠다고 하자, 비마사나왕은 매우 기뻐하였다.

한편 월광왕의 나라에서는 성문을 맡은 신이 노도차가 월광왕의 머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아무도 성안에 들여놓지 않았다. 이때 수타회천(首陁會天)이 월광왕의 꿈에 나타나 머리를 보시함으로써 불도(佛道)를 얻을 것이라 알려주었다. 왕이 꿈에서 깨어 대월 대신에게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막지 말라고 명하자, 성문을 맡은 신이 대월 대신에게 나쁜 마음을 품은 바라문이 왕의 머리를 얻으려 하기에 성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대월은 만일 바라문이 왕의 머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일곱 가지 보배로 된 머리를 각각 500개씩 만들어 왕의 머리와 바꿀 것이라 생각하였다.

노도차에게 왕의 머리를 얻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월광은 기뻐하며, 7일 뒤에 머리를 주겠다 대답하였다. 이때 대월 대신은 일곱 가지 보배로 된 머리를 가지고 와서 노도차를 달래었으나, 그는 영영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이에 너무도 분하고 마음이 아파 대월의 심장이 일곱 갈래로 찢어져 왕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많은 신하와 궁인들 역시 왕께 머리를 보시하지 말라며 월광왕을 말렸다. 그러나 머리를 보시하기를 말리는 이들에게 월광은 내 몸은 여러 가지 더러운 물건으로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마침내 버려지고 말 것이다. 위태롭고 약하며 더러운 머리를 버려 큰 이익과 바꾸는 것이거늘 왜 주지 않겠는가. 나는 이 머리를 바라문에게 보시하고, 그 공덕으로 맹세코 불도를 구할 것이다. 만일 불도를 성취하여 공덕을 완전히 갖추면 갖가지 방편으로써 너희들을 고통에서 건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마침내 노도차가 왕의 머리카락을 후원의 나뭇가지에 묶은 뒤에 칼을 잡고 왕의 머리를 베니 머리가 왕의 손바닥에 떨어졌다. 이때 하늘에서 '월광대왕은 머리를 보시하였다. 단바라밀(檀波羅蜜, 육바라밀의 하나로서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 언덕에 이르는 행법)이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라는 소리가 천하에 두루 퍼졌다. 이를 들은 사악한 비마사나왕은 기뻐 뛰다가 심장이 찢어져 죽었으며, 노도차 역시 비마사나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실망하여 심장이 일곱 갈래로 찢어져 피를 토하고 죽었다. 비마사나왕과 노도차는 모두 아비지옥에 떨어졌으나, 월광왕의 죽음에 애통하다 죽은 이들은 모두 천상에 태어났다.



돈황 막고굴 제275굴에 그려진 〈월광왕 본생도〉. 4~5세기경 조성됐다.

자기 머리 보시해 열반 이룬 월광왕
남전 장경서 찾아볼 수 없는 본생담
간다라 탁실라서 만들어져 東傳된 듯

그때의 월광왕은 석가모니이고 비마사나왕은 마군의 왕 파순(波旬)이며, 노도차는 조달(調達, 제바닷타)이다. 그리고 대월 대신은 사리불이다. 그 옛날에도 사리불은 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 나보다 먼저 죽더니, 오늘에 와서도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 먼저 죽었느니라."

월광왕이 머리를 보시한 이 이야기는 남전 장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본생담으로서, 간다라 지역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돈황과 중국의 내륙에 전파돼 있다. 5세기 동진(東晉)의 승려 법현(法顯)의 〈고승 법현전(法顯傳 또는 불국기)〉에 "건타위국(揵陀衛國, Gandhara)에서 동쪽으로 7일쯤 가자 축찰시라(竺刹尸羅, Taxila)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축찰시라란 중국어로 머리를 자른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때 여기에서 머리를 남에게 보시하셨다고 한다"라는 기록에서 볼 때 '월광왕 두시품' 본생담은 간다라 지역의 탁실라에서 만들어져 동쪽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도해한 사례는 서역 북도의 쿠차(庫車, Kucha)지역 키질(克孜爾, Kizil) 석굴의 8 · 17 · 91 · 100 · 178 · 198굴 등의 여러 굴에서 찾아볼 수 있다. 6~7세기경 그려진 키질 178굴의 〈월광왕 본생도〉는 마름모 형태의 화면에 중앙의 커다란 나무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월광왕이, 왼쪽에 노도차가 그려져 있다.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묶인 월광왕은 두 손을 펼쳐 잠시 후에 떨어질 자신의 머리를 받으려 하고 있으며, 노도차는 칼을 높이 들어 월광왕의 머리를 베기 직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키질 석굴 본생도의 특징인 이야기의 가장 긴박한 순간을 하나의 장면에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이 그림 역시 죽음을 앞둔 월광왕의 마지막 모습을 한 장면에 극적으로 남기고 있다.

〈월광왕 본생도〉를 찾아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북량(北涼, 386~534) 시기에 조성된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275굴의 북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화면 왼쪽에 반가좌를 취하고 있는 인물이 월광왕이며, 그 앞에 세 개의 사람 머리 형상이 담긴 그릇을 바치고 있는 인물은 대월 대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노도차가 월광왕의 머리를 원하자 이를 만류하고자 칠보로 왕의 머리 형상을 만들어 노도차를 설득하려는 대월 대신과 대월에게 자신의 보시를 막지 말라는 월광왕을 묘사한 장면이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은 검은 연기에 훼손되어 그림이 많이 손상되었으나, 녹청색의 잎이 무성한 나무에 머리를 묶고 두 손을 합장한 월광왕과 왕의 머리를 자르려 오른손으로 푸른색 칼을 높이 든 노도차가 보인다. 전형적인 중국식 표현으로 사건의 전개 순서에 따라서 서술식으로 도해한 이 그림에서도 키질 석굴 178굴처럼 월광왕의 머리를 얻으려는 노도차의 탐욕과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월광왕의 모습이 공통되게 묘사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월광왕의 보시를 표현한 〈월광왕 본생도〉가 현존하고 있다. 고려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보협인탑의 탑신부 사면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시비왕 본생도(尸毘王 本生圖)〉, 〈사신사호 본생도(捨身飼虎 本生圖)〉, 〈수대나태자 본생도(須大拏太子 本生圖)〉와 함께 〈월광왕 본생도〉가 부조로 표현돼 있다. 석탑의 조각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탁본한 그림을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화면에 네 명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그중에서 화면 중앙에 가장 크게 묘사된 인물을 살펴보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무릎을 살짝 굽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그 앞에는 무릎 꿇고 앉아 두 손을 높이 들어 무엇인가를 만류하는 인물이 조각돼 있다.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 끝에는 두 손으로 긴 칼을 높이 치켜든 인물이, 왼쪽 끝에는 합장을 취한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이 장면은 월광왕이 자신의 머리를 원하는 노도차에게 고개를 숙여 머리를 자르기 쉽게 자세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두 손을 펼쳐 곧이어 떨어질 자신의 머리를 받으려는 내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월광왕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인물은 대월 대신이며, 칼을 들고 있는 인물은 탐욕스러운 노도차를 표현한 것이다.

간다라 지역에서 출현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월광왕의 보시 이야기는 많은 깨달음을 준다. 사람의 몸은 약하고 오래 가지 못하며, 마침내 버려질 것이라는 월광왕의 말씀이 오늘날 불로장생과 동안이라는 겉 표면에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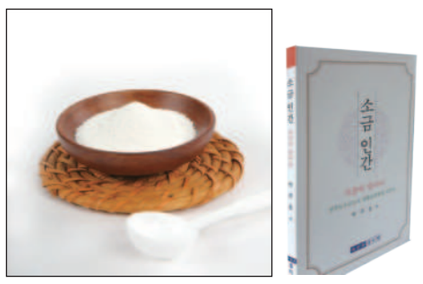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 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박원자의 母情佛心 34 선림사 보우 법사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지리산 산청 선림사 보우 법사는 출가자 같은 삶을 사는 수행자다. 그의 모친도 평생 수행하는 삶을 살았고, 영향을 받은 보우 법사는 대원사에서 잠시 출가 생활을 했다. 아버지의 설득으로 하산한 보우 법사는 속세에서도 수행에 매진했다.

"어찌 그리 특별한 생각을 했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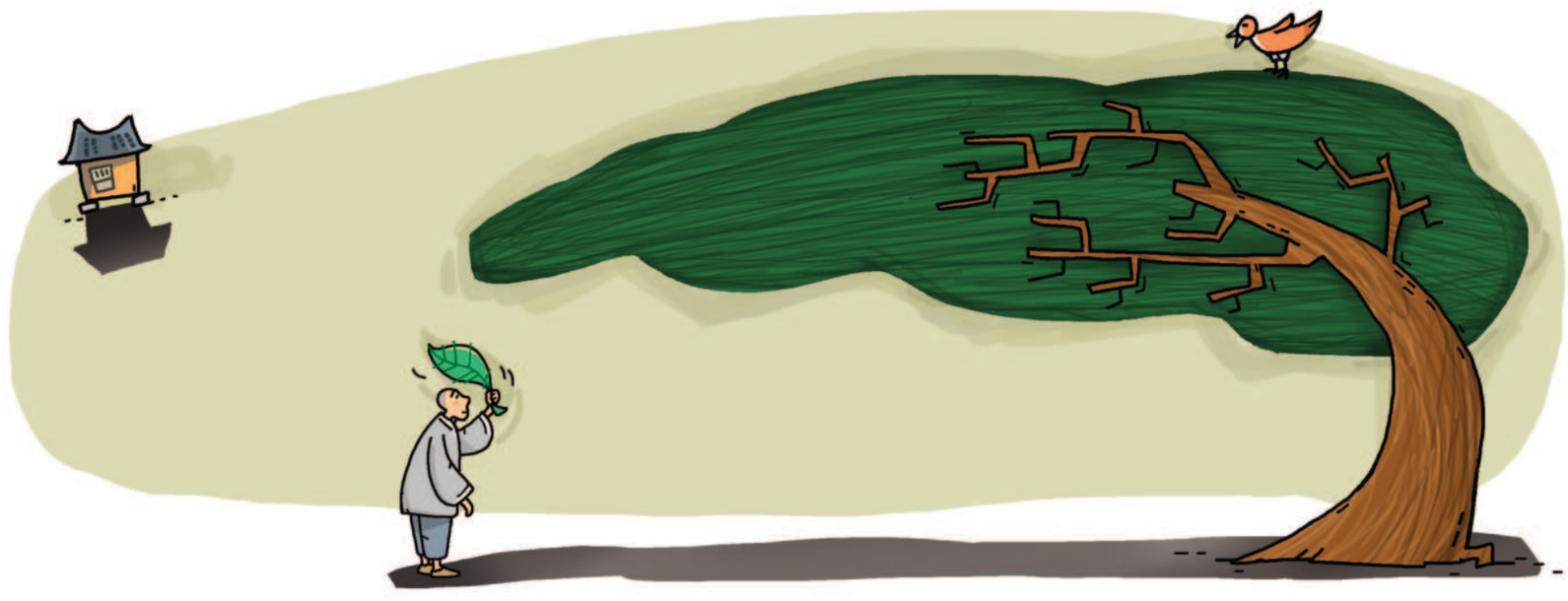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출가자 같은 삶을 사는 보우 법사
그의 모친도 평생 수행의 삶 살아
잠시 출가 생활… 父 설득에 하산
속세서 수행, 법전 스님에게 인가

〈지장보살 예찬문〉을 읽으며 100일 정진 중이다. 참회하고 싶어질 때 하는 기도다. 예찬문을 보면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온갖 액난 구하심은 부모와 같고 겁약한 이 숨겨줌은 숲과 같아라.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청량수 되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과일이 되며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복이 되고 더위속의 사람에게는 큰 구름 되며, 가난 속의 사람에겐 여의보가 되고 공포 속의 사람에겐 의지처가 되며, 모든 중생 모든 선근 두호하시며 묘한 경계 나타내어 즐겁게 하고, 중생들의 참괴심을 더하게 하며 복과 지혜 구하는 이 만족케 하네."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고 하니, 아마 이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며 기도하다 보면 지장보살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가. 지혜와 자비심을 닦는 깊은 수행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이 내용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지장보살과 같은 분이 있다. 선림사 보우(普雨) 법사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지리산 산청의 선림사에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법석을 이루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이 함께 와서 축제처럼 하루를 즐기다 돌아갔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법회 때도 가족들이 함께 와서 법회를 보고 간다. 이 모두의 중심에 보우 법사가 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절수행을 하고 절에 와 기도하고 있는 신도들과 새벽예불을 본다. 사시예불과 저녁예불을 빼놓는 법이 없다.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의 인생 상담을 귀 기울여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

출가자보다 더 출가자처럼 살아가는 보우 법사에게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했다. 어머니는 늘 새벽 3시면 깨어 있었다. 청수를 떠놓고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리고 낮에 잠시라도 누워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연세 들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눕지를 않자 의료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다. 누우면 잠이 올까봐, 게으른 마음이 들까봐 평생 눕지 않은 분이다.

어머니는 십 남매를 키우며 임업을 하는 아버지를 도우며 사셨다. 일하는 분들이 다른 집에서 새경을 많이 준다고 해도 떠나지 않고 평생 함께 일했던 것은 어머니의 넉넉한 인품 때문이었다. 주인상과 인부들의 밥상이 언제나 똑 같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선해보였던 것 같아요. 남의 허물을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잔치가 열렸는데 새색시가 호박꽃처럼 못 생겼다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자 어머니가 '참 복스럽게 생겼던데 왜 그런 말들을 하지' 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자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자랑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하셨죠. 자식들이 뭘 잘못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지 않고 따로 불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형제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답답할 정도로 말씀이 없으셨지만, 언제나 세밀히 자식들을 보고 계셨죠. 뿌리가 드러나 흙이 필요한 나무에 거름을 주어야하는 것처럼 부모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식을 키우셨어요."

"신행생활은 어떠셨나요?"

"언젠가 책상 서랍에서 공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빼곡하게 '관세음보살' 만 쓰여 있더라고요. 자식 열을 키우고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관세음보살' 을 쓰면서 견디셨구나 생각했죠. 어머니가 읽으시던 〈금강경〉책을 본 적이 있는데 휴지조각처럼 너덜거렸어요. 따로 불교공부를 하신 것도 아닌데, 뜻을 알고 보았겠어요? 〈금강경〉은 그 자체가 광명이니까 내면으로 그 빛이 스며들었겠죠. 힘들 때 보고 또 보면서 어려움을 삭히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딸이 출가한다고 절로 들어갔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

보우 법사가 출가를 단행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였다. 학교공부는 도무지 흥미롭지 않았다. 외워야 하는 문과 과목은 재미가 없었고, 수학은 답이 궁금하지 않았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친구들이 말할 정도로 묵언하며 지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학교가 아닌 것이 분명했다. 늘 산이 그리웠다. 그러다가 책방에서 〈불교성전〉과 조사어록을 사서 보게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네 가지 진리와 팔정도, 청정한 삶, 지혜의 성취, 보살의 일상생활 등에 밑줄을 쳐가며 읽었다. 참선에 대한 경책 외우다시피 읽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반드시 스승을 찾아 그 한 스승의 가르침에 집중하라.'

드디어 출가를 결심했다. 스승을 찾아 집을 나와 해인사로 갔다. 그런데 해인사는 남자들만 받아주는 곳이었다.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가 지리산 대원사로 갔다. 비구니 스님들만 사는 대원사에서의 행자생활은 말 할 수 없이 좋았다.

"새벽이 너무 좋았어요.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곤욕을 치루기 마련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새벽 예불 할 시간이 부모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예불하고 풀 뽑고 경을 읽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하산하셨나요?"

"몇 달이 지나자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공부가 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며 앞으로 마을에서 네 뜻을 펼 날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보고 해야 인생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람이 된다며 출가를 전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설득하시더군요."

"보통 마음으로 절에 들어간 것이 아닐 텐데 금방 설득이 되셨나요?"

"아버지께서 제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산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불을 지르실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 되지 산에 불은 왜 지르느냐고 하고 짐을 쌌죠. 아버지는 평소 자식들에게 '두 발을 조심하며 정도를 가라' 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대원사 스님께서 아버지를 만나 말씀을 들어보시고는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니 아버지 말씀에 따르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쓰던 큰 염주를 제 목에 걸어주곤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매사 분별이 없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로지 기도하고 일만 하신 분이죠. 어머니는 삶의 대한 모든 이치를 꿰뚫고 예지력이 뛰어났던 분이에요. 제가 어떤 길을 갈지 알고 계셨죠."

세간으로 돌아와 여전히 재미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고 대학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남자를 만났다. 세간에서도 수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은 그 남자에게 청혼했고,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로부터 오기 이전의 본래면목' 을 화두로 들고 정진했다. 매일 1080배는 기본이고 3천배, 5천배, 1만 배를 수시로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수행 체험을 하면서 고통 받는 중생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서원했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 잘 공부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한 스승을 만났다.

김천 수도암에서 절 수행을 하며 백중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백중일에 수도암에 다니러온 해인사 큰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경계들을 말씀드렸다. 묵묵히 듣고 있던 큰스님께서 입을 여셨다. "퇴설당으로 한번 오너라." "가게 되면 누구라고 하고 들어가야 합니까?" "성품을 활연히 깨치다, 활연성(豁然性)이 왔다고 일러라."

그 자리에서 법명을 준 스승은 해인사 방장과 종정으로 계시던 법전 큰스님이다. 그렇게 평생 염원이던 스승을 만나 퇴설당으로 찾아갔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시고는 '다음에 올 때는 가족을 데리러 오라' 고 명하셨다. 교사인 남편, 연년생인 고등학생 남매를 데리고 갔더니, 중국의 방거사 가족 모두가 견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발심해서 철저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방거사 가족처럼 견성할 수 있다며 가족 모두 출가하기를 권하셨다.

평범하지 않은 가족임을 알았던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항상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가족이었다. 세속에서의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꿈에도 없었다. 남편은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때로는 아내보다 더 열심히 마음공부를 했다. 당신에게 언제나 산 냄새가 난다며 언젠가 산으로 보내줄 테니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3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만 배 수행을 할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곁에서 절을 하며 엄마를 응원했다.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출가를 선언했던 딸은 그 후 호주로 유학 가 국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출가했다. 법전 큰스님이 손수 딸의 머리를 밀어주셨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가족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던 큰스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진정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잡담하지 말고 적게 자라. 부지런해야 공부를 이룰 수 있으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자성을 깨치고 사는 진리의 길만이 영원한 행복이다."

손녀딸의 출가를 두고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생각을 했냐고, 너에게 꼭 맞는 길을 선택했다고 좋아하셨다. 그 옛날에 딸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 85세이신데 여든둘까지 108배 절을 하셨어요. 어머니 절 하시는 모습은 모든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정도로 진실한 모습 그대로세요. 절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한 생이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자매들이 모이면 어머니처럼만 살 수 있다면 인생 성공이라고 말하곤 하죠."

말없는 고요함과 친절한 자비심. 이 두 가지가 보우 법사와 어머니의 공통분모가 아닐까 싶다. 모전여전 아닌가. 〈작가〉



사성제, 作聖諦와 無作聖諦로 설명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㉒ 두 가지 사성제(四聖諦)

"만약 한량없는 번뇌장(煩惱藏)에 얽매인 여래장에 대하여 의혹하지 않는다면 한량없는 번뇌장에서 벗어난 법신에 대하여서도 의혹이 없을 것이며, 여래장과 여래의 법신을 말한 불가사의한 부처님 경계와 방편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곧 두 가지 거룩한 진리(聖諦)를 말한 것도 믿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거룩한 진리의 두 가지 뜻을 말한 까닭이니, 어떤 것이 두 가지 거룩한 진리의 뜻을 말한 것인가 하면, 그것은 지음이 있는 거룩한 진리(作聖諦)의 뜻을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음이 없는 거룩한 진리(無作聖諦)의 뜻을 말한 것입니다.

지음이 있는 거룩한 진리의 뜻을 말한다는 것은 곧 한량이 있는 4성제(聖諦)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 인해 능히 일체의 고(苦)를 알고, 일체의 집(集)을 끊으며, 일체의 멸(滅)을 증득하려고 일체의 도(道)를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유위(有爲)의 생사(生死)와 무위(無爲)의 생사가 있으며, 열반도 그러하여 남음이 있는 열반과 남음이 없는 열반이 있습니다. 지음이 없는 거룩한 진리의 뜻을 말한다는 것은 한량이 없는 4성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써 받는바 일체의 고를 알고 받는 일체의 집을 끊으며, 받는 일체 멸을 증득하고 받는 일체 멸하는 도(道)멸도를 닦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덟 가지 거룩한 진리로 여래께서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章)에서는 사성제를 작성제(作聖諦)와 무작성제(無作聖諦)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작(作)은 작위(作爲)로, 의도적으로 애를 써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마음이다. 반면에 무작(無作)은 무작위(無作爲)로, 말하자면 인위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수성이 그대로 완전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음이 있고 지음이 없는 것을 구분해 말하는 것은 이승의 사성제와 대승의 사성제를 다르다고 보는 견해에 의해서이다.

〈법화경〉을 깊이 연구한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는 〈법화현의〉에서 네 가지 사제를 세워 생멸사제, 무생멸사제, 무량사제, 무작사제로 나누기도 했다. 이 중 무작사제에 대해서는 대승의 보살이 제법을 관찰할 때에는 사사(事事)가 이(理)에 즉(卽)하여 있기 때문에 조작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을 무작이라 한다 하였다. 작(作)은 중도에 대한 미혹이 남아 있어 이(理)에 어두워 보리가 번뇌가 되고 열반이 생사가 되는 것이 고제(苦諦)이지만, 이를 통달하고 보면 번뇌가 곧 보리가 되는 것이 도제(道諦)이고 생사가 곧 열반인 것이 멸제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사(事事)가 중도가 되므로 조작하는 것이 없으므로 무작이라 한다고 설명하였다. 원래 '무작'이라는 말은 어떤 작용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또 분별 조작이 없어 자연 그대로인 것을 뜻하는 말이다. 때로는 무위(無爲)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유마경〉에는 이렇게 말했다.

"법은 공을 거스르지 않고 무상(無相)에 따르며 무작(無作)에 응한다. 법은 아름답거나 추한 분별을 떠나고, 법은 증가하거나 감손되는 차별을 떠나며, 법에는 생성과 소멸이 없고 법은 돌아가는 곳도 없다. 법은 육근(六根)으로 포착되지 않으며, 법에는 높거나 낮은 차별이 없다. 법은 항상 머물며 움직이지 않으며 법은 모든 관행(觀行)을 여의었다."하였다.

생사를 말하면서도 유위의 생사와 무위의 생사를 말했는데, 마음에 생멸이 남아 식심(識心)이 완전히 끊어지지 못한 것은 유위며, 생멸이 사라져 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위다. 유루업(有漏業)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생사에 윤회하는 것은 유위생사이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비원력을 세움으로써 능동적으로 생사에 머무는 보살의 변역생사를 무위생사라 한다.

부처님이 이승을 위한 작성제와 대승보살을 위한 무작성제를 각각 설하여 여덟 가지로 사성제를 설했다고 밝히고 있는 대목이 〈승만경〉 사성제 설명의 특징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칭명염불로 현세와 사후세계 이익 얻어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㊺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칭명염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을 알고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알아듣고 모두 벗어남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가지는 사람은 설령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관세음보살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환난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는 분이라 하느니라."

"신통의 힘을 흡족하게 갖추고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의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세계가 없느니라."

경에서의 말씀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시지만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2응신으로 보신을 나투시며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할 때는 수행자 본인 스스로가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지은 죄업 때문에 끝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는 중생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본원력과 가피력에 의지하여 오직 일심으로 염불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나 자신의 자력적인 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통감하고 무한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염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원시불교 때부터 있었다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은 이미 원시불교시대 때부터 실천되어왔습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사닉왕이 뒤에 이르러 몸을 가지런히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누각 위에 올라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합장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세 번 '나무경례 세존여래응등정각'이라고 하니 현세 법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을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증일아함경〉에서는 "모두 나무불이라고 부르세. 석가모니불은 가장 훌륭한 이로서 능히 안온함을 베푸시고, 모든 고뇌를 제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을 칭명하는 염불로써 현세와 사후 세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에서의 말씀과 같이 염불수행을 하게 되면 현세의 이익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의 내세 이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증일아함경〉에서는 삼보를 염(念) 함으로써 무위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무불'이라고 부르면서 모두 나의 처소에 와 현재에 공양한다. 저 부처님의 과거는 선정이 평등하여 증감이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는 성중들이 받들어 섬긴다. 전심으로 삼보를 섬기면 반드시 무위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나무불'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염불수행에 의해 분명히 무위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설한 '나무'는 산스크리트어의 namas를 한역한 것인데 그 뜻으로는 '귀명(歸命)', 귀의(歸依)란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이 '귀의'란 의미는 부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㉒ 뱀에 대한 비유의 경 ③

오온으로는 구할 것이 없다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 그 뗏목에 의지하여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저어 안전하게 저 언덕에 건너갔다. 저 언덕에 도달하자 그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메고 갈 곳으로 가면 어떨까?' 수행승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가?"

다섯 가지 집착 다발인 오온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수행하고 경을 배운다면, 그것은 뗏목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물질, 느낌, 인식, 욕구, 의식은 무상하다"고 하신 것과 "오온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몸을 위험에 빠뜨리고 목숨을 내던져버린 것과 다름없다. 이제부터 이 오온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이 선언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다른 이들이 그렇게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무엇을 알게 되면 대부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진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오온이 알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만 알리려는 것이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다. 다른 가르침은 없다. 그런데 다른 것을 알려고 하니 많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수행의 길은 앞서간 사람의 말을 얼마나 빠르게 알아듣고, 앞서간 사람의 길을 바로 간파하느냐의 문제이지, 앞서간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인연이 다양하다 보니 방편의 소리가 많을 뿐이지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은 것은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 던져버린 곳을 말하는 것이니 가르침은 많을 수 없다.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부처의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 "바로 자네의 목숨을 내던진 곳"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무엇을 살려두려고 하면 모든 것을 낱낱이 전달할 수는 없다. 오온의 입을 막아버리려면, '오온으로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구했다는 것이 부질없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구한 것으로서 누구에게 말을 한다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몸은 내가 아니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오온은 무상한 것이고, 그 무상한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이 고통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오온을 나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할 뗏목을 계속 머리에 이는 것도 모자라, 그 뗏목 안에 무거운 물건을 얹고 무겁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음인 것이다.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은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새기는 것이다. 그러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성냄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진다.

오온이 내가 아님을 알고 나니 해탈할 것도 없이 해탈되어 버린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 이름이 해탈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오온이 무상함을 알고 무상한 것을 나라고 하지 않으면, 다시 무엇을 찾아 나서는 일은 없다. 한 발 움직일 필요 없이 바로 듣고 바로 알면 끝이지, 움직여 알아낸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오온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니, 다시 오온에 대해 참구하여야 한다. 오온이 무상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 생각 일어남. 생각 없음, 생각 없음 사라짐
이 네 가지 어디에도 무념의 뜻 없네
네 가지 모두 토끼뿔 같은 줄 알아야
그때 무념이 무념이 되고
그 전의 무념은 무념이 아닌 줄 알게 되네
오온이 사물을 보고 있으니
스스로는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아버렸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심장구멍·고혈압·호흡곤란까지…
기로에 선 어린생명

스리랑카에서 온 말리트씨 딸 미실캬라 태어나자마자 치료실 행
3000만원 병원비로 지불…매일 100만원씩 갚아야 할 15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1호 | 17 | 전면광고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 죄와 업장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참회하여 없애야 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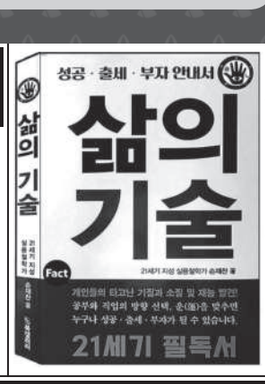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입멸후 2,566년만에 처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놀라운 유훈을 완전히 공개한다!!

※ 신간 ※
『대반열반경의 비밀한 뜻을 밝힌다』
010-3514-7084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4766-3200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남구
010-4773-0849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되거라 기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영남 범음 · 범패 교육 도량

– 49재 · 천도의식 · 바라작법등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3시간)
팔공산 구화사 아카데미 교육원
문의 010-9421-9364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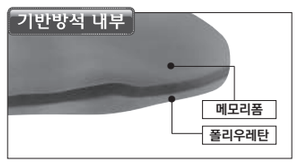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1호 | 18 | 전면광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1,361㎡(411평)
- 건물 총면적 : 91.88㎡(27평)
- 가액 : 2억3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체인점 상가주택

- 충남 아산 핵심요지 대도로 코너 체인점 임대, 상가포함공실無
- 대지 263㎡(80평), 건평 472㎡(143평)
- 융자 3억8천 승계, 인수금 2억8천
- 년 순수익 3천3백만원 태종공인중개사 유승열

010-8348-2858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 요사체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해우소 1동(문 5개)
- 모든 건물은 무건물입니다. ● 유실수 다량 감, 자두, 호두, 매실, 두릅, 오디, 머위, 산에는 약초, 송이버섯 ●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 가액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2평, 법당 : 30평 산신당 : 5평, 요사 : 방 5개 화장실 : 2개(외부1/내부1) 주차공간 많음
- 가액 : 2억 7천 (땅값만 받습니다)

010-7661-40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 위치 좋음
- 상가 : 4층 55평, 법당, 방2, 주방, 주차장
- 보증금 2천만원, 월 45만원
- 시설필요시 답방후 합의가능

010-7109-46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 상가2층 단독 60평
- 삼존불, 탱화, 인등, 사무실, 공양간, 스님방, 화장실3개
- 주차공간 좋음
- 가액 1억2천만원

010-2857-2811
010-7457-281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신탄진 톨케이트 인접
- 대지 : 53.5평
  1층 : 요사채 25평
  2층 : 법당 22평
- 주차공간 매우좋음
- 가액 : 3억 3천

010-9058-6163

도심속 예쁜 사찰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가액 5억(절충)

010-9286-1008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급매(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영천 포교당 안내

- 72평, 2층 독채 (법당, 사무실, 방2, 다각실, 공양실, 공양간, 화장실1, 창고2, 옥상)
- 주차장 있음, 시설완비
- 보증금 500 / 월 60만원 (시물권 있음)

010-5065-956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용주면 봉기리
- 대지 : 300평(종교부지) 농지 : 114평(논)
- 목조법당 : 25평 요 사 채 : 20평
- 가액 : 4억원

010-4835-17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 건평 : 약 50평
-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 가액 : 7천 5백(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

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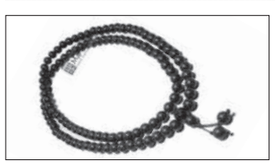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⑪ 강원도 동해시 감추사 음나무

악귀 막아준다 믿던 그 나무, 도량 한켠에…

순간 거센 바람이라도 일면 거대한 파도가 들이칠 것만 같은 경내에서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대웅전은 보이지 않고 관음전만 견고하게 있다. 법당에 들어가 절부터 해야 할 것 같지만, 바다와 평행으로 걸려 있는 주련에 눈길을 준다.

"해안가 외롭게 막혀 있는 곳 보타 낙가산 / 도량의 교주이신 관세음보살 / 헤아리기 어려운 네 가지 덕을 받아 거침없이 사네 / 서른두 가지 몸으로 나타나시어 열네 가지 두려움을 없애주시네"

해안도로에서 과선교를 건널 때부터 슬금슬금 밀려온 낯설음이 시멘트 계단을 내려가 철책선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고립되는 듯한 두려움이 해일처럼 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부터 관세음보살만 연이어 부르면 터무니없는 근심 걱정 끼어들지 못 하고 편안히 머물다 갈 것 같다.

감추사는 백제 무왕과 혼인한 신라 선화공주로부터 시작된다. 원인 불명의 피부병에 걸린 왕비는 온갖 약에도 낫지 않자 지명법사의 권유에 따라 감추해변으로 옮겨 치료에 전념한다. 3년 동안 자연동굴에 불상을 모셔 놓고 기도를 하고, 북산 용산소에서 매일 목욕재계를 하던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건네주는 묘약을 마시고 긴 투병을 마친다. 명의는 부처 혹은 관세음보살일 것이고, 무왕은 부처의 은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명을 따 감추사라는 절을 세운다.

그뒤 일은 1990년 8월 신도회장 이름으로 세운 안내판을 보면, "그후 신도들은 대은사 분암 또는 신건암이라고 보전하여 오다가 서기 1959년 해일에 의해 유실된 것을 서기 1965년에 감운법사가 내사하여 낙산의 절경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천연약수는 수중지수라 하여 수명을 감로수라 짓고 사찰을 중건하고 사찰명을 감추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1965년에 삼성각 · 용왕각 · 요사채 1동이 세워졌고, 1979년에는 박복수라는 이가 절 입구에 5층 석탑을 건립하였고, 2006년에는 관음전이 지어졌단다.

감추사의 감추(甘湫)는 '달디 단 못' 정도로 옮겨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동해의 감추어진 비밀 사찰로 생각하며 꼭 가보기를 강추한다. 그것은 기암절벽으로 이어져 있는 신비로운 풍경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공간에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말끔히 씻겨줄 것 같은 사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번뇌를 잠시 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아울러 수평선 벼랑에서 이겨내기 힘든 아픔이 산더미처럼 몰아쳐 와도 해수관음상 앞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히 염원하면 선화공주가 얻은 축복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믿음이 솟구쳐서다.



동해 감추사 음나무(사진 오른쪽 식물)

비탈에 촘촘히 들어선 달동네처럼 비좁고 경사진 계단을 조심조심 걸으며 곳곳을 둘러보는데, 해수관음상 뒤쪽에서도 감추사중창건감운당공덕비 앞에서도 음나무들이 돋보인다. 그것은 소나무, 향나무의 길쭉한 잎만 보다가 손가락을 쫙 펼친 손바닥을 보는 듯한 널찍한 잎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관심을 두고 본 건 음나무가 가지는 귀신 퇴치 문화가 생각나서다.

두릅나무과 낙엽 교목인 음나무는 전국 어디서든 잘 자라는 나무로 개두릅, 엄나무, 음나무로 부르다가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음나무로 통일되어 올라가 있다. 개두릅은 두릅나무의 새순인 두릅과 모양이나 맛이 비슷하지만 음나무 새순이기에 원조보다 조금 못하다는 의미의 접두어 '개'를 붙여 개두릅이라 하고, 엄나무는 줄기에 가시가 나 있는 게 엄중해 보여 엄나무라 하고, 음나무는 한글 변화 과정에서 엄나무가 음나무로 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집 주위에 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오래 살고 대표적인 밀원식물이고 목재로서도 유용한 가치가 있어서다. 특히 모든 불행의 근원이 나쁜 귀신이라고 믿었던 시절 음나무 가시가 악귀의 잠입을 막는다고 해서 문설주에 걸어놓았다고 하는데, 시대가 변한 만큼 이 문화는 사라지고 없다.

최진규 약초학자에 따르면, 가시가 있는 식물은 악성 종양이나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음나무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몸에 침투해 생긴 신경통이나 관절염, 그리고 타박상, 근육통, 근육마비, 입안의 염증, 만성 대장염, 어깨와 목이 뻣뻣한 것, 갖가지 종기, 종창, 옴, 피부병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자연에서 약초로 쓰이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그들이 자라는 곳은 척박한 조건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은 숱한 벌레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방어 물질을 내보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약성을 지니게 된다.

장기간 머물기에 위태로워 보이는 터 같지만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바닷가의 감추사,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음나무 새순 한 입 넣거나 껍질 삶은 물을 음용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면, 아, 머무는 곳이 극락이 아닐까.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⑪ 정복선의 '아무 곳이나 다 도원'

桃源, 그 빛나는 사바세계

〈도원〉

아무 곳이나 다 도원/ 정복선

이곳이 도원? 아무렴 도원(桃源)이지
벼르고 별러서 온 곳이니,
밥 지을 일 없이 간호사실에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고
환자와 더불어 온종일 뒹굴뒹굴
어디 갈 필요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선사(禪師)처럼,
흰 담벼락은 사뭇 아스라해서 사이프러스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한 줌에
가져온 시집이나 산문집 읽고
핸드폰 뉴스, 카톡, 사진, 멜론이나 검색하고

여기저기, 분수 흩어지는 못에 대리석 연꽃수반에
마음 밑바닥의 상심 회심 여여심(如如心)을 꺼내어
던진다, 하나, 하나, 동전들처럼
아무리 던져도 소용돌이치며 가라앉는다
복사꽃은 그림자도 떠오르지 않고,

하루는 저리 투박하고
벽을 둘러싼 덩굴은 무진한데
흠모했던 그 많은 달빛들은 삭은 명주실이다,
지루한 표류도 이내 끝날 때가 온다
지나가고 나면 울새울음만 귓가에 남겠지

수반에 초승달이 빠져 헤엄칠 무렵
마침내 손끝에 꽃잎 한 점 밀려온다면, 그곳이 도원,
아무 곳이나 다 도원이야

–정복선 시집, 〈젊음이 이름을 적고 갔네〉, 문예바다, 2022

도원(桃源)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준말이다. 이상향(理想鄕, 유토피아)을 뜻한다. 그런데, 그 도원이 왜 이리 가슴 저미는가. '벼르고 별러서 온 곳'인데 왜 이리 가슴 때리는가. '밥 지을 일 없'고,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고', '온종일 뒹굴'고, '어디 갈 필요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선사(禪師)처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사이프러스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한 줌에' '시집이나 산문집 읽고', '핸드폰 뉴스, 카톡, 사진, 멜론이나 검색하고', 틀림없이 도원은 도원이다. 그런데, 왜, 마음이 결리는가.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밥 지을 일 없이'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는데 'Who'가 먼저 결렸다. '밥 지을 일 없이'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긴 하는데, '간호사실에' '주문한 대로 식사가 나오'는 것이다. '온종일 뒹굴뒹굴' 하긴 하는데 '환자와 더불어' '온종일 뒹굴뒹굴' 하는 것이다. '사뭇 아스라' 한 '흰 담벼락'도 결렸다. 도원은 '요양병원'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벼르고 별러서 온' '요양병원'이었던 것이다.

'벼르고 별러서 온 곳'이라는 대목에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났다.(필자의 어머니도 그렇게 '벼르고 별러서' 지금 도원에 가 계신다.) '벼르고 별러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른 것이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지만, 애써 '도원'(아미타 극락세계)이라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곳에서 애써 선사들처럼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애써 '마음 밑바닥의 상심 회심 여여심(如如心)을 꺼내어'서 '못에' '대리석 연꽃수반에' '동전들처럼' 던지며, '지루한 표류'가 '끝날 날'(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울새처럼, 울새울음처럼.(그런데 그 울새와 울새울음 위로 1948년생인 정복선 시인의 모습이 오버랩 돼 오는 까닭은? 이 시집이 정복선 시인의 고백록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이 시가 정복선 시인의 비망록처럼 느껴지는 까닭은?)

시는 정직하다. 정복선 시인의 이 같은 눈부신 불교적 상상력과 '정직한' 반어(反語)는 이 시집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그 '정직한' (불교적) 역설 몇 개만 더 맛보자.

"세상이 나를 찍고 베어 내고 켜고 다듬네/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로 이네 대청마루로 놓네// 세상이 나를 빻고 빻아 명사산(鳴砂山)의 모래로 날리네/ 흩날리며 우네 사막 너머 투르판의 포도나무를 키우네/ 푸른 열매, 건포도가 되네// 세상이 나를 덖고 볶고 찌고 말리고 삶아서/ 나물도 만들고 차(茶)도 만들고 약도 만드네// 손가락에 남은 지문 희미하네/ 내 어머니도 그러하였고 내 딸 또한 그러하겠네// 우울한 날에는 혼자서 구름을 덮고 눕다가/ 문득 말을 타고 달려 나가네" -(이상 〈연기법(緣起法)〉 전문)

"연꽃은 구경도 못했다/ 마하가섭만이 알아챘던 그 염화미소를/ 어디선가 만날 듯 만날 듯/ 건기(乾期)의 끄트머리,/ 먼지투성이의 길, 시장, 마을, 그리고/ 탄소동화작용조차 방해할 듯 나뭇잎새들을 뒤덮은 먼지의 켜/ 땅을 걷기만 하면 구두가 흙색이 되었다/ 우기(雨期)가 오면 모든 길들이 진흙밭이 되리라// 뭄바이에서 어렵사리 찾아낸 공중화장실/ 심란스런 바닥에서 아무렇게나 넝마로 뒹구는 사람들 틈// 수돗가에서 만난 어린 거지소녀의 웃음은/ 그 진흙밭에서 올라온 해맑은 꽃대궁이었다〉-(이상 〈인디아, 내 마음의 릴리프 4-연꽃은 구경도 못했다〉 전문)

그래. 이 사바세계는 아무 곳이나 다 도원이다. 공중화장실이다. 아미타 극락이다. 이 사바세계에서 아미타 극락을 찾지 못하면, 어디 가서 아미타 극락을 찾겠는가. 우리들의 공중화장실에서 해맑은 꽃대궁을 찾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해맑은 꽃대궁을 찾겠는가. 내가 머문 이곳이 바로 도원이요, 아미타 극락이다. 이 사바세계, 공중화장실이 바로 아미타 극락이요, 연꽃이다. 유토피아다. 정복선 시인은 온몸으로 사바세계를 걷고 공중화장실에서 뒹굴고, 서까래로 대청마루로 놓이고, 모래로 흩날리면서도, 지문이 희미하도록 볶고 찌고 말리고 삶음을 당하면서도 말을 타고 달려나가고, 거지소녀의 웃음처럼 공중화장실에서 해맑은 연꽃 꽃대궁으로 올라온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부처다. 정복선 시인은 이미 그 경계를 걷고 있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❻ 죽음명상 2 – 부정관 수행



▶한줄요약
부정적인 내용을 경험하면 긍정적인 것들이 더욱 소중해진다.

자신 죽음·부패 떠올리면 삶이 '행복'

이전의 연재에서 살펴 본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과 더불어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죽음 명상으로는 부정관(不淨觀, asubhānupassin, meditation on impurity)이 있다. 부정관 수행은 인간 육신의 깨끗하지 않음(不淨)을 관하는 수행으로 위, 심장, 피, 고름 같은 신체를 구성하는 장기나 물질 또는 시신이 부패해가는 과정을 관하는 수행이다. 부정관은 몸, 느낌, 마음, 법의 네 가지 대상에 대한 마음챙김[사념처:四念處] 중 몸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身念處)에 포함되며 〈디가니까야(Dīgha Nikāya)〉의 '대념처경(Mahāsatipaṭṭhāṇasutta)' 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인간 몸을 구성하는 32가지(털, 손발톱, 살, 뼈, 심장, 간, 가래, 고름, 피, 땀 등)의 구성 물질에 대한 부정관, 시신에 대한 아홉 가지 관찰에 대한 부정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신에 대한 아홉 가지 관찰' 은 인간의 사체가 아홉 단계로 부패해가는 모습을 관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과 더불어 불교의 대표적인 죽음 명상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에서는 "부정관 수행을 하는 자는 시신의 부패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이 몸도 저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며, 저것과 같이 될 것이며 저렇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을 관찰해야 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떠올려야 한다" 고 말한다.

경전의 내용은 붓다가 제자들과 함께 실제로 묘지 근처의 시신을 보며 설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현 사회와는 달리, 당시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현실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설해졌을 수도 있다.

부정관 수행의 핵심은 나의 죽음 이후 전개될 장면들에 대한 '생생한 이미지' 를 활용하는 것이며 다른 이의 시신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상기시킨다' 는 점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과 유사하다. 그러나 〈청정도론(淸淨道論)〉에서는 부정관 수행에 대해 "부정한 표상(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대상에 마음을 가져다 묶는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 성스러운 머묾과 수행으로 인한 덕행의 토대를 얻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부정관 수행의 본래 목적이 인간의 신체가 청정하지 않은 것(不淨)임을 떠올리며 탐욕을 버리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맛지마니까야(Majjhima Nikāya)〉에서도 "라훌라야. 부정 수행을 닦아라. 왜냐하면 라훌라야 부정 수행을 닦는 자는 감각적 욕망이 끊어지기 때문이다"라 말한다. 따라서 부정관의 본래 목적은 성욕, 몸에 대한 집착 같은 육신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부정관이 죽음관련 명상이긴 하지만 삶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 하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의 목적인, 바른 생사관 확립, 죽음에 대한 수용성 획득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체가 부패 되어가는 장면을 생생히 관찰하거나 떠올리는 것이 지나친 '혐오감' 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에 아동, 청소년 혹은 심신미약자가 명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죽음관련 이미지의 '순화' 를 통해서 부정관 수행 또한 현대 사회에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정관 수행은 중요한 2가지 즉, '생생한 죽음 관련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과 '명상 수행' 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정관도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과 같이 삶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하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부정관 수행이 죽음 이후 자신의 시신이 부패해가는 장면을 사진과 같은 생생한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점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이 죽음을 시간과 연결 짓는다는 점과는 구별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죽음과 관련한 불교 명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과 더불어 현대의 죽음학과 죽음 교육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도구로써 활용될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정관을 활용하는 목적을 재고해본다면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과 같은 맥상에서 삶에서 죽음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결과물들,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인생과 행복의 의미에 대한 반성, 죽음에 대한 수용의 힘을 기르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경에서 말하는 부정관의 시신에 대한 아홉 가지의 장면을 정리해보면, '1.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검푸르러 짐 → 2. 시체가 까마귀 등 동물과 벌레들에 의해 먹혀짐 → 3. 시체에 살과 피, 힘줄이 뼈에 붙어 있는 것을 봄 → 4. 시체에 살은 없고 피로 물들어 있음 → 5. 시체에 살과 피가 없이 힘줄만이 뼈에 얽혀있음 → 6. 시체에 뼈만 남아 흩어져 있음 → 7. 시체의 뼈가 하얗게 변해있음 → 8. 시체가 뼈가 흩어져있음 → 9. 시체의 뼈가 삭아서 가루가 됨' 이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에 걸쳐서, '죽음의 이미지를 생생히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 또한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상기한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행복 의미 대한 재고 가능
새로운 삶 준비하는 계기

위의 부정관 수행의 핵심적 요소들을 추출하면 현 사회의 맥락에서도 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이미지화해 상기 하는 것' 그리고 '명상' 이다. 현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에는 죽음에 대한 교육 또는 명상처럼 실천적이며 체험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측면이 부족하다. 또한 교육은 학교교육 뿐 아니라 평생교육, 교양교육 등 한 개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측면들을 모두 아우르는데 이러한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교재' 는 유형의 책, 영상 등의 재료도 있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명상' 과 같이 무형의 경험적 요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명상은 어떤 물질적 교재없이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본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세, 호흡, 마음(죽음의 이미지화)이 가미된 명상 형태의 교육적 도구는 매우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교재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정관 명상에서 죽음을 이미지화(imaging)하여 마음속에 떠올린다는 점은 죽음에 닿아서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떠올려 구체화 하여 죽음을 가까이 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현 사회에서 심신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의 교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체의 부패 과정을 이미지화해서 상기하는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어린이, 청소년이나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침 혐오감 유발로 인한 불안장애, 우울장애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정관에서 활용하는 시신에 대한 이미지를 연령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할 '순화된 죽음 이미지' 를 사용한다면 적절한 수행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신의 살과 피, 힘줄, 뼈의 부패가 진행되어가는 이미지보다는 다소 완화되고 수정된 이미지를 선정해 단계별로 죽음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종을 기다리며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 → '사망에 이르러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모습' → '관속에 시신이 누워있는 모습' → '관이 묘지 속에 넣어지는 모습' 등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망하기 직전의 모습(병원이나 집에 누워있는) → 사망 직후의 모습 → 사망 후 시신이 처리되는 모습 → 시신의 처리 후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매장 혹은 화장되는 모습) 등의 틀 안에서 임종에 이르기 직전, 임종, 그리고 임종 후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순화된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부작용을 방지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부정관 명상을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은 1) 죽음 관련 이미지 선정 그리고 2)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떠올리며) 명상하는 것이다. 명상 방법은 바닥에 앉아서 행하는 좌식명상이든, 혹은 의자에 앉아서 행하든,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와 목을 곧게 유지하며 호흡은 천천히, 고요히 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연재에서 보았던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을 수행할 때와 동일하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언급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죽음 관련 이미지를 떠올린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나는 한입의 음식을 씹고 삼킨 이후에 죽게 될 것이다' 혹은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쉰 이후에 죽게 될 것이다' 등 '죽음과 시간성' 을 연결지어 반복해 마음챙김 하는 것이고 부정관은 '죽음관련 이미지' 를 활용한다.

특히 부정관 수행의 죽음 이미지는 본인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지만, 가족, 친구 등 타인의 이미지를 적용한다면 명상의 목적은 다른 측면으로 확장될 수 있다. 사망 직전, 사망 직후, 사망 이후의 이미지의 주인공을 부모님, 친구 등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특정한 타인을 이미지의 주인공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만약 타인의 죽음 이미지를 명상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미국의 죽음학과 죽음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죽음교육 카운슬링 협회(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에서는 비탄교육(grief education)을 강조한다. 비탄교육이란 사랑하는 이를 보낸 유족들을 위한 교육이다. 물론 당사자의 죽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족, 친구, 반려동물 등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또한 중요하며 사별 이후의 심리적 돌봄 문제도 중요하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기 전 이미 그들의 죽음 이미지를 떠올리며 명상하는 것은 생전에 미리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사별 후 죽음에 대한 수용력을 증가키는 등 일종의 '죽음대비교육'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함도 일깨울 것이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별인이 된다는 것을 감당키 힘든 충격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은 남은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며 우울증, 불안장애, 또는 보통 트라우마라 불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등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경우 자살 충동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관의 대상을 타인으로 확장해 활용하면 죽음의 필연성을 사전에 각성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수행의 도구로서 활용 될 수 있다.

부정관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함으로써 삶과 죽음, 행복의 의미에 대한 재고, 죽음에 대한 수용성 증가와 더불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상기함으로써 얻어지는 비탄교육의 효과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대행 스님

마음 밖에서는 절대로 내 자성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물질을 세우고, 내 몸뚱이라고 세우고, 말을 세우고, 이름을 세우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참마음의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마음의 전달이 속속히 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이렇게 좋은 법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 없건만 '어쩌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모를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어저께 잠깐 일체 만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무정물이나 생물이나 또는 날짐승들이나 낮은 동물들은 다 일 년에 지나가는 모든 것을 알고 생활을 하고, 또는 어떠한 무리가 닥쳐오는 것을 알고 지내고 있고, 기상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고, 갖가지로 모두 알고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유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제대로 전달을 못 하는 원인은, 바로 몸뚱이와 말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착을 떼 버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떼 버리라고 해서 쉽게 떼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밖에서는 절대로 내 자성불을 찾을 수가 없으며, 자성불을 찾지 못한다면 일체 만물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달을 못 하고 또 일체 만물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는 데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괴롭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응용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내 생각만 해서 남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말을 해 버리고 맙니다. 또 내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내가 아니면 이런 건 못 한다고 하는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그르치는 겁니다, 모든 게. 벌레 하나도 허투루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운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대중을 모아 놓고 "이 세상에 모든 게 왈가왈부하는데", 다시 말하면 '광활한데'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깐 복잡다단하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종이 울리니 어째서 너희들은 칠조 가사를 입느냐고 하셨답니다. 종소리를 듣고 어째 칠조 가사를 입느냐는, 뭣 때문에 그 칠조 가사를 입느냐 이런 말이죠. 거기에는 참 심중 깊은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대중들은 제각기 달리 들은 겁니다. 똑같이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심중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 간단하게 하셨건만도, 그건 말씀이 아닌 말씀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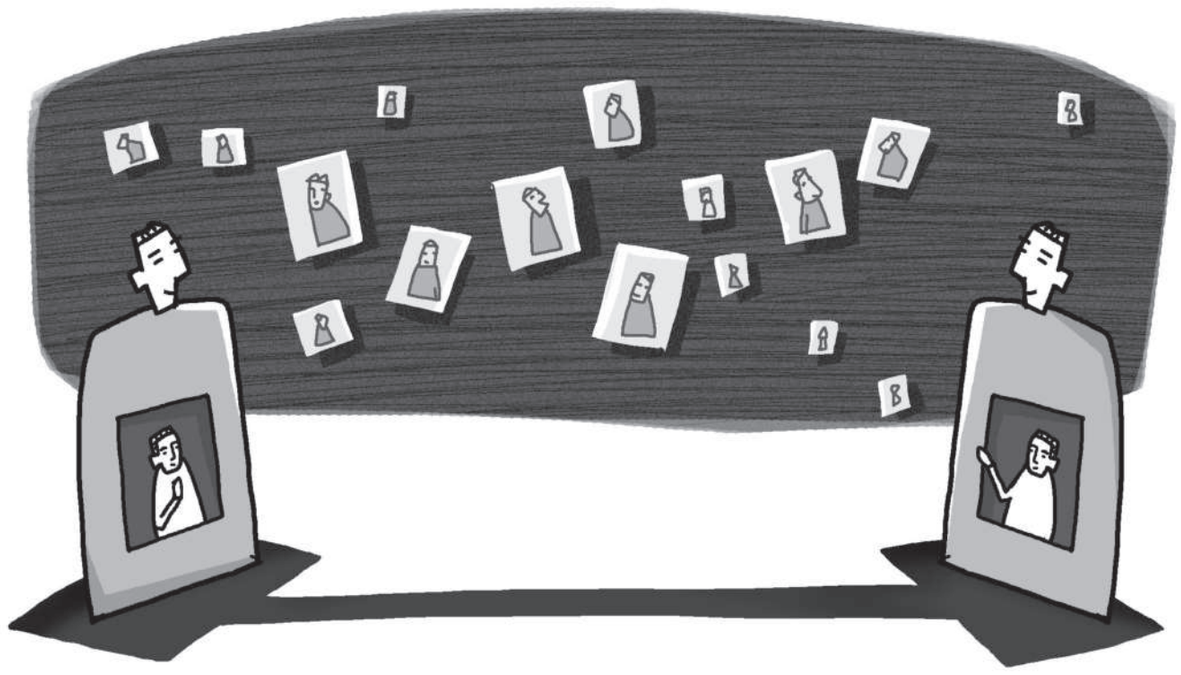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사에는 칠조 가사, 구조 가사, 오조 가사가 있는데 최초로 가사를 두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한 폭이면 한 폭, 두 폭이면 두 폭, 한 오락지면 한 오락지 이렇게 시주를 한 거니까, 오조는 조그만 오락지들 모아서 한 거고, 칠 폭을 얻으면 칠조로 하고 또 구 폭을 얻으면 구조로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중 깊이 들었겠죠.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음미해 본다면 대답을 가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또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나 대답하는 마음이나, 마음과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말로 전달을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마음 밖에서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거니와 마음 밖에서 나를 어떻게 찾으며, 마음 밖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배짱을 알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수천수만의 조사들의 그 배짱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 한마디, 의미 깊은 말씀 한마디를 내던졌건만도 그것을 모른다면 내 소견만 소견이라고 하지, 남의 소견을 모르니까 그거는 바로 귀머거리나 똑같은 얘기죠.

예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죠? 어느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가서, 보리쌀 뜨물 한 그릇을, 가난한 집에서 바리때에 담아 주는 거를 먹고서 너무 가엾어서 나무 한 짐을 해다 주러 갔노라고요. 나무 한 짐을 잔뜩 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은사, 즉 산 부처가 있다 하는 소리가 "이놈아, 어쩌면 그렇게 좁으냐?" 이거죠. 너는 어째 그렇게 좁으냐.

너의 몸뚱이를 등을 받쳐 놓는 등대라 한다면 네 등잔은 마음이니라. 그런데 마음으로 말하면 거기엔 또 기름도 있어야 하고 심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심지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냥으로 불을 당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값에 못 가. 무주상 보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무를 한 짐 해 줘 봤자야 한번 태워 버리면 그뿐일 것을, 그렇게 마음이 옹졸해서야 나무 한 짐 한 본의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작대기로 정강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나뭇짐째 그냥 디굴디굴 굴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자 거기서 '아차!' 하고선 그 도리를 깨쳤다 합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마디 들으면 가정에서나 도량에서나 자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남의 차원에서는 좀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내가 좀 더 그 도리를 이해를 하고 그쪽 방면으로 한번 서 보는,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내가 서 보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고 그 마음이 됐다면 남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을 하게 되는 자비심이 생겨서 가정도 조화를 이루고 또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부부가 만나서 사는 데도 간단하게 생각이 되지마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 그것이 너무도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러고도 생활에 의해서, 자기 인연에 의해서 천차만별로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생활을 하게 돼 있죠. 장사꾼은 장사를 하고 정치인이면 정치를 하고 말입니다, 뭐든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내 몸도 복잡다단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폐허가 되면 또 한쪽이, 즉 말하자면 공장장이 폐업을 하고 파업을 일으킨다면 몸 전체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복잡다단하고 모든 생명들이 내 몸 안에 형성이 돼서 한 사람의 선장으로서 마음을 먹게 돼 있으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데다가 가정도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사회도 복잡다단합니다.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한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여섯 가지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를 비유를 한다면 등, 등대, 기름, 심지, 성냥, 사람이 움죽거려야 켭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너는 그것을 뭣 때문에 먹느냐'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칠조를 뭣 때문에 입느냐,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너는 뭣 때문에 칠조를 입느냐' 이런 것도 '밥을 다 해 놓고 먹을 걸 차려 놓고 너는 뭣 때문에 그걸 먹느냐' 이런 거나 똑같은 문제죠. '너는 뭣 때문에 사느냐' 이런 것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이 말은 참 심사숙고하고 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체가 없으면서 듣고 있고, 나도 체가 없는 마음이 지금 움죽거려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듣는 마음과 하는 마음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 마음 안에서 일체 만법의 활용을,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주어진 데에 따라서, 자기 차원에 따라서 말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이 등잔과 등대가 있는 게 아니고 코드만 가지면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여섯 가지 방편을 썼지마는 지금은 여섯 가지가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한 가지가 여섯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섯 가지만 여섯 가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한생각에, 코드 하나에 끼웠다 뺐다 할 수

☞ 22면으로 계속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에다 굴려놓으라

☞ 21면에서 계속

만 있다면 안에서 끼고 바깥에서 끼고 할 수 있다면, 안에서 끼면은 바깥에서 벌써 환하게 비치는 거 아닙니까? 가설은 본래 돼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 살아 있다 하면은 벌써 이 세상 가설은 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즉 끊임없는 예로부터 지금 여기 나오기까지 마음을 전달해서 이날까지 나온 것이지 마음을 전달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예부터" 하는 소리는 억겁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긴데, 그때서부터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계발하고 마음의 계발이 됨으로써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됨으로써 몸이 바뀌지고 바뀌짐으로써 옮겨 놓고, 옮겨 놓음으로써 우리는 예까지 온 것인데, 지금 옮겨진 몸만 몸인 줄 알고 있죠. 어저께 굼벵인 줄 모르고 오늘 매미인 줄만 아는 그러한 속 좁은 마음이죠.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한데 뭉쳐서, 일심(一心)도 고정된 게 없다는 걸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자에는 전자대로 끊어지지 않고 예부터 오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이 마음을 "예부터" 했단 말입니다. 옛 자리나 지금 자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돼 가지고 일체 만물의 선장인 부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폭이 넓지 못하고, 팔이 넓지 못하고 마음이 넓지 못해서 우주의 근본과 일체 만물의 근본을 한 마음에 넣고 굴리지 못합니까? 물론 새들도 재잘거리고 입으로만 말을 하지, 도대체 마음으로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 말소리를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듣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다섯 가지 오신통이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듣고 보고 해도 내가 이것을 옮겨 놓을 줄 모르고 자유자재 못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보기만 하면 뭘 하고 듣기만 하면 뭘 합니까?

만약에 백 명이든 십만 명이든 딱 마주쳤을 때, 즉 말하자면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내가 급하니까 그것을 옮겨 놓을 수밖에는 없는 거, 즉 말하자면 어떠한 폭풍이 왔을 때 '폭풍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 놓고 분배를 하면 여기도 무너지지 않고, 저기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할 때, 이것은 자기 자성의 근본적인 자비요, 바로 자비의 원력입니다. 무너지면 살려고 하기 이전에 내 몸뚱이도 그 몸뚱이도 모두가 다 중생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마음이 그렇게 넓은 자비 원력이 있다면, 폭풍이 올 것을 흩어지게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수백 명에 달하는 인명이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무너지는 걸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잘못들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왜? 가는 것 잡지 말고 오는 것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살면서도 내 앞에 닥치는 거 남 일 보듯 그냥 돌아설 겁니까? 닥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스스로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저녁거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은 스스로 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라 해서 하고 말라 해서 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피해서 달아나가지 않습니다. 가정이 다 굶어 죽어도 내가 귀찮다고 '에잇, 나나 먹으면 됐지.' 그러고 그냥 달아나가진 못합니다. 그러니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날아다니는 새도 "엄매 엄매" 하고 우는 소도 심중 깊이 마음으로서 말을 했다면 그건 말이 아닌 마음입니다.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아마 운문 스님도 마음을 전달해서 말을 했는데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걸 한 사람이라도 들었다면 정말이지 이것은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보배를, 우리가 싱그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나를 세우지 말고 남에 참견하지 말고 주변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을 탓을 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러지 마세요. 남의 탓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놨을 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놨을 때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완화되고 그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돌아가는데, 말로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런다면 공부하는 거는 틀려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만 벌어져 가지고 싸움만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데 심중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습을 몽땅 떼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끝으로 얘기해 드릴 것은 우리는 지금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을 둘로 보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나로 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깨달은 대로의 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자비다' 이런 거 말입니다. 왜? 그건 무명을 치고 옷만 벗겼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욕이 아니라 자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답답하면 욕을 한마디 해 놓고선 그 사람 마음의 근본을 건지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남의 속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해 버리는 그런 습이, 여러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때는 그 습관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른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도 급작히 닥쳤을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작히 닥칠 때에 한번 찔러 보면 영락없이 예전의 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좋은 법이 돼서 한번, 어저께도 조금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일체 만법에 의해서 마음의 보배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코드라면은 큰 거를 쓰려면 큰 코드 하나에, 마음을 먹을 때 '나는 모터를 돌리겠다.' 하고 코드를 꽂으면 모터가 돌아지고 '난 냄비에 찌개를 끓이겠다.' 하고 코드를 꽂으면 찌개가 끓여지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의 섭리나 이 세계의 섭리나 나라의 섭리나 가정의 섭리나 복잡한 몸의 섭리나 모두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자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니 부처니라."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색에 끄달리지, 욕심에 끄달리지, 말에 끄달리지, 나에 끄달리지 모두 끄달리다 보니깐 아예 그냥 철통같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의해서 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을 먼저 하는 것은 사법이고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이든 사법이든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놔 버려야 됩니다. 놔 버리고서 자기가 한생각을, 한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무심히 생각하면서 무심히 밥 먹고 똥 누고 잠자고 편리하게 살아나가듯이 큰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스스로의 자기 한생각에 좋게 돌아올 수 있는, 좋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저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 좋게 탁 내던질 때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을 좋게 내 주기 위해서 한 번 찔러 볼 수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 번 말을 푹 찔러서 남의 부아를 훌렁 뒤집어 놨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땠을까 하는 것도 한번 해 봄으로써 거기에선 한마음의 도리에 큰 공덕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서도 속이 뒤집어지게 남한테 말을 해 주는 거는 그것도 자비다 이겁니다. 그 왜? 모르는 사람이 뒤집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돌아가지만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 속을 뒤집어 놓는 거는 그건,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비입니다. (중략)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 탓 안 한다. 남을 원망 안 한다. 남을 증오 안 한다. 남의 말에 끄달려서 돌아가지 않는다. 남의 참견을 안 한다. 모든 것은 안으로 굴린다. 참견을 안 하되 참견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앞에 닥친 참견은 해야지요. 이 도량에서도 만약에 뭐가 잘못 돌아간다 이럴 때는 자기 생각에, 주인공에 맡겨 놓고 돌아가게 해야지, 이걸 말로 발설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런다면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바깥으로 더 커지죠.

이런 건 다 놔 버리고 자기한테만 오로지, 자기 주인공한테만 맡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들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걸 봤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거슬린 거지 내가 없이 어떻게 거슬립니까?

그런 거를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끝없는 예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습을 녹일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항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항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복을 받고 내가 항복을 하는 건데, 항복을 받는 사람도 나요, 항복을 하는 사람도 나다 이겁니다.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십이상이 구족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대로 산 부처다 하는 겁니다. 산 보살이다, 산 법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기 이전에 그걸 다 놔 버리고, 못났든 잘났든 문이 아니든 문이든 한번 엎드러져 보고 돌아가는 거지, 이것이 큰 경험이며 보배를 크게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로 '팔만대장경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요렇게만 가야겠다' 이건 모두가 착이야.

예전엔 그렇게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고 성냥이 있고 손이 있어야 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도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지지 억지로 들어지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본다 하는 것도, '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마음을 담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요. 글자를 쓸 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글을 씁니까? 그래서 글을 보지 말고 그 글 속에 백지의 마음을 봐라 이겁니다. 글씨가 나를 보고 내가 글씨를 보지 말라 이겁니다. 그 글씨 속에 있는 거를, 우리는 그대로 글씨 써 놓은 대로 이름을 가지고 상징하지 말고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운문 스님이 말씀하신 그 뜻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스스로 코드를 꽂고 스스로 코드를 빼고, 우주 법계에 스스로 천체 통신력으로 이행해 주고, 그대로 통신이 되면 가차 없이 그대로 정돈해 주고 책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이 도리를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화가 오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해결할 것이 있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마음이 체가 있어서 어떠한 한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체가 없기 때문에 한생각 내면 그냥 그게 내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병에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도리를 이렇게라도 알아서 커버해 주는 사람은 쉽습니다. 병이 아무리 위독하다 할지라도 옆에서 아는 사람이 커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붙들고 애를 쓰면은 그만치 더딥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묘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조금도 애착이 없이, 남의 걱정 하기 이전에 나부터 아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남의 걱정이 있걸랑은 내 마음에다가 맡겨 놓으시라는 얘기지 걱정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자비한 마음이 있걸랑은 안에다가 굴려놓으십시오. 거기에 맡겨 놓으신다면 오히려 내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 주는 것보다 백 곱쟁이 천 곱쟁이 아마 좋은 결과를, 씨를 거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도 좀 더 사는 데에 괴로움이 없이 사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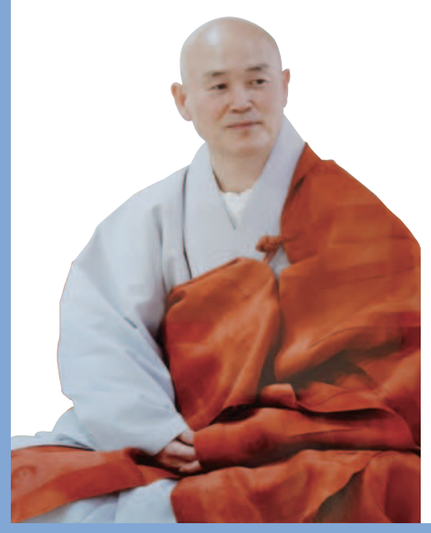
공부하는 사람은 남 탓 안 한다.
남을 원망 안 한다. 남을 증오 안 한다.
남의 말에 끄달려서 돌아가지 않는다. 남의 참견을 안 한다.
모든 것은 안으로 굴린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6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3차분 13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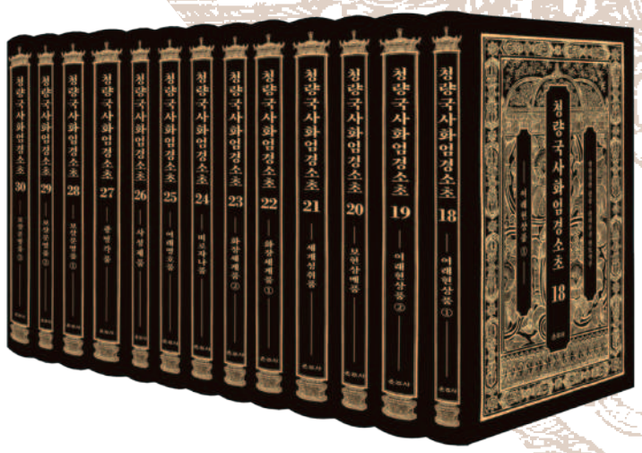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30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1차분 「화엄현담」 10권(2020년), 2차분 세주묘엄품 7권(2021년)
드디어 3차분(2022년) 제2품 여래현상품부터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제10품 보살문명품까지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현불 논단 |

언론, '포스트 포털' 대비하라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아마존에 매각된 '워싱턴포스트'
2013년 신문업계의 대사건 기록
IT기업, 언론사 인수 세계 추세

국내 종이신문 구독자 감소 꾸준
온라인 강화 노력에도 성과 부진
공룡 '포털사이트'가 걸림돌 작용
뉴스 유통 초점… 저널리즘 상실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도 변화를
테크놀로지 맞게 뉴스 생산해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과 함께 미국의 3대 유력 일간지로 통한다. 1877년 창간한 전통의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 닉슨의 측근들에 의해 숨겨졌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특종을 통해 닉슨의 대통령직 사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미국 신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의 〈워싱턴포스트〉가 2013년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에게 인수됐다. 이는 세계를 대표하는 전통 있는 유력 일간지가 IT기업의 손에 넘어간 신문업계의 대사건으로 기록됐다.

인수 당시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플랫폼 강화를 위해 뉴스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필요했다. 그는 도널드 그레이엄 〈워싱턴포스트〉 회장을 만나 3시간동안 대화를 나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레이엄 회장이 제시한 2억 5000만 달러의 인수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별도의 협상 없이 즉각적인 인수결정을 내렸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문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종이신문의 판매부수가 감소하고, 독자들이 종이신문 대신 인터넷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신문이 IT기업에 매각되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뉴스의 이용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국내 신문산업 실태를 보더라도 종이신문의 구독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신문사들은 디지털 뉴스 이용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라인 부문을 강화하고 인터넷 독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이다. 포털은 이미 2005년부터 개별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포털로 대거 이동했다. 2011년 55.4%였던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2021년 79.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신문 이용률은 약 36% 감소했다.

신문을 통한 뉴스의 이용이 감소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 이용이 포털로 집중하는 현상은 우려할 일이다.

저널리즘의 가치는 단순히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담론과 여론의 형성을 통해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데에 있다. 언론 산업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위기와 혼돈을 겪게 되면서 저널리즘의 가치가 서서히 상실되어 가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거대 이용자를 확보한 몇몇 포털이 뉴스 콘텐츠 이용의 주 관문이 되면서 뉴스 생산 권력보다는 뉴스 유통 권력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됐다. 몇몇 포털이 다수의 언론사를 압도해 여론을 독점하는 현상이 고착화하는 일을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단계는 이제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으로 확장됐다.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런 테크놀로지에 주목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가 〈워싱턴포스트〉을 인수한 사례에서 보듯이 자본력과 기술력이 집약된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에 언론사가 맞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은 뉴스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이기에, 언론사와 언론인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적용에 대해 뉴스 생산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낮은 관심과 몰이해, 그리고 외면과 포기가 가져온 결과가 포털 종속으로 귀결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포스트 포털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나도 무영탑 되어 보리라

정오에는 태양이 머리 위 꼭대기로 떠올라 그림자가 없다. 이때 모든 탑은 불국사의 무영탑(無影塔)이 된다. 누구나 마음속의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면 불성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리라.

〈벽암록〉 18장 '충국사(忠國師)의 무봉탑(無縫塔)' 도 같은 맥락이다. 무봉탑이란 어느 곳도 꿰매지 않은 천의무봉(天衣無縫)을 뜻한다. 하늘 옷은 꿰매지 않은, 즉 삼라만상은 꿰매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이다.

당나라 숙종 황제가 충국사라고도 불리는 혜충(慧忠) 국사에게 "스승님께서 입적하시면 무엇을 해 올릴까요"라고 물었다. 원만 무애한 경지에 이르러 생노병사를 끝내려는 혜충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혜충은 무봉탑(無縫塔)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진리를 깨달으면 일체가 무봉탑인 것을, 황제도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무봉탑의 속뜻을 깨달으라는 부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숙종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탑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요"라고 다시 물었다. 하는 수 없이 혜충은 제자 탐원(耽源)에게 탑 모양을 말해 두었으니 내가 죽거든 물어보라고 했다. 혜충이 입적하자 황제는 그를 위해 탑을 세우려고 탐원에게 그 형태를 물었다. 탐원은 '상지남(湘之南) 담지북(潭之北)' 이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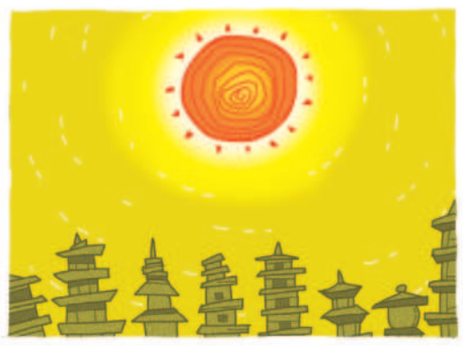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탐원은 계속 게송을 읊었다. "中有黃金充一國 無影樹下合同船 瑠璃殿上無知識."

"거기에는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다", 시방세계에 가득 찬 것이 있다면 황금(불법)뿐이다. 우리가 불성(佛性)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함께 타는 배"가 된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정오의 나무처럼 그림자가 없다. 무영탑이 된다는 것이다.

탐진치(貪瞋癡)와 에고가 없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은 다 함께 부처라는 배를 타고 있다. 이 불심의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 탐원은 유리 궁전으로 간다고 했다. 그런데 그 '유리로 만든 궁전 위에는 지식이 없다.' 유리 궁전은 청정한 불국토를 일컫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마음의 문만 열면 과학, 예술, 종교로 치장하지 않아도 온 세상은 진여불성(眞如佛性)이 펼쳐 있는 무봉탑의 세계라는 것이다.

충국사는 말한다. 이제 상대적인 분별이 없는 절대의 경지로 들어가는데 지식으로 만든 유형의 탑을 세워 무엇 하겠느냐고. 만물도 일체의 본유로 있는 것이지 조각난 것이 아니다. 온 우주가 무봉탑이다. 우리는 본래 무영탑으로 태어났다.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른 하짓날 정오에는 나도 무영탑이 되어 보리라.

〈작가〉

社 說

군승 파송에 종단 지혜 모아야

군승 파송 미달 사태 해결에 불교계 안팎의 지혜가 모아지고 있다. 출가자 감소라는 총체적인 문제 속에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분야가 군승 파송이라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 군승 파송 미달사태로 현역 군승법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저하다. 군승으로의 정체성 강화 이후 각종 교육을 통해 역량 배양해 온 조계종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도 제기됐다. 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출가자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청년불자 포교의 최일선에 있는 군승 수급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불교 TO가 감소할뿐더러 단기적으로는 업무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가제도와 연계한 군승 파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병역 미필 스님들이 3년간 단기 군종장교로 군포교를 수행하는 것을 추진해볼만 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특위에서 제시된 청년 예비출가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립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군종사관후보생도 다시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후배 간의 맥을 잇고, 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가 발심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해야 한다.

군포교는 한국불교 미래를 일구는 터전이며, 군승법사는 군포교 현장에서의 핵심 자원이다. 군승 수급에 지혜를 모으는 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전국여성불자회, 여성 포교 전환점되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포교원이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세부적인 조직 계획과 취지 등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국여성불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에 대한 방향성과 제언들이 이어졌다.

특히 조계종 신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구 여성 조직으로 꾸려진다는 점에서 기대와 관심이 높았다.

다소 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조직이라는 여론도 많다. 그동안 종단이 여성포교에 무심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불자 조직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약했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무엇보다 씁쓸함도 적지 않았다. 전국여성불자회의 출범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동력으로 추진되기보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종단 정체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범종단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불자들의 기대감은 상당했다. 어려움을 계기로 한국불교 여성포교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종단의 의지도 결연하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각 교구에 기반한 지역별 · 계층별 · 직능별 세부조직을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원력이 한데 모였다.

위기가 기회다. 모처럼 모인 여성불자들의 원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롭게 출범할 전국여성불자회가 지난 세월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여성불자들의 신심과 원력, 역량을 기반으로 여성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은 물론, 침체된 한국불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 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